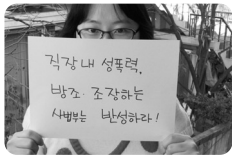


Contents



issue

기획특집	뒤로 가는 최근의 성희롱 판결을 보며	2
	- 거리인터뷰 : 언니들의 말.말.말	3
	- 판례비평 : 성희롱을 원인으로한 해고 가혹한 처벌인가?	5
	- 논평 : 재판부의 남성중심적 판단	8

info. in common

쟁점과 입장	문화일보와의 기 싸움 3개월	10
	성폭력피해 생존자의 인공유산 선택권	13
	긴급행동 "ANTI - 훼손된 차별금지법 !!!"	15
	군대의 조건	17
거꾸로뉴스	2007년, 천태만상 성폭력 10대 뉴스	20

survivor's voices

상담실에서	〈조건만남과 성폭력 상담〉 사례연구 시간을 함께하며	24
생존자의 말하기	水의 이야기 - 연재 7 '그 속에서 무시하기'	26
열린터 생각	열린터 다이어리	32
	〈여행수첩〉 보름달만큼 짝 찬 즐거운 추석 가족여행	33
	〈여행후기〉 추석여행을 다녀와서	34

edutainment

성문화읽기	꿈을 가진 여자의 위험함에 대해서, 〈카핑 베토벤〉	35
몸이야기	고통이 아니라 행복을 질문하기 - 연재 2	38
만나고 싶었습니다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40
이런 프로그램	슈타이너 교육 - "나무결이 우연히 그리는 그림을 보세요"	44

report & membership

원대!상담소	원대!상담소	46
사업 review	〈여성주의 상담, 나침반을 찾아라!〉	48
	작은 말하기, 마니아mania의 탄생	49
	5회 말하기대회 - 뜨거운 놀이, 뜨거운 말하기 "언중유희"	52
	페미니스트 대운동회 - 여자들이여, 가을을 달리자	54
	꿈테라피 - 꿈은 상처가 없다	56
회원소식	일일호프 반한날 안내 / 소모임 활동보고 / 훈훈한 기부 소식	58

뒤로 가는 **최근의** **성희롱 판결**을 바라보며

- 3월 29일** 회식자리에서 끼안는 등의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차 모씨의 소송에 대해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회식자리에서 자유롭게 술을 마시다 일어난 만큼 지위를 이용해 업무 또는 고용 상 불이익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며 차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이후 11월 12일 항소심에서는 '회식자리가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고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한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6월 14일** 지난 2006년 2월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들이 가진 회식 자리에서 여직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최연희 의원의 항소에서 서울고법 형사9부는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용서했다'는 점을 들어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 6월 15일**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게 한 행위는 성희롱"이라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 결정에 대해 대법원은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갖게 하고, 객관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혐오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 경우이다. 최 교사가 김 교감의 발언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같은 처지에 있던 다른 일반적인 여성들이 객관적으로 같은 감정을 느낄 정도가 아니라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며 성희롱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배헌태 대법원 공보판사는 "일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는 성희롱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7월 6일** 법원은 소속팀 선수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명수 전 우리은행 여자농구팀 감독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 전 감독에 대해 "피해자와 그 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고통을 준 데 대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전과가 없고, 만치 상태였고, 평생 농구계의 발전을 위해 힘을 왔고, 5000만원의 공탁금을 제출했고, 반성한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용서하지 말고 꼭 처벌해 달라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정상참작' 속에 분해되었다.
- 10월 15일**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기업 지점장인 원고 김씨는 여직원 원에게 목과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거나 회식 뒤 여직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김씨의 행동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이나 일부 여직원은 격려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고, 지점장으로서 직원에 대한 애정을 표시해 직장 내 일체감과 단결심을 이끌어낸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17일 수학여행 도중 학생들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여 해임된 교사 조모(54)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처분 취소소송에서 "해고는 지나치다"며 "지난 30년간 별다른 과오없이 교직에 헌신해 온 원고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자, 어떤가요?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성희롱'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감이 오지 않나요? 이번 기획특집은 '뒤로 가는 최근의 성희롱 판결을 바라보며'입니다. 이러한 판결 소식을 들으면서 드는 심정을 거리 인터뷰, 판례비평 그리고 논평 글에 담아보았습니다.

거리
인터뷰

일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일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언니들은
이러한 판결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일까요?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온라인사업팀 아름

언니들의
말, 말, 말

직장 내 성희롱, 이젠 직장생활 제대로 못 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매번 집을 나서면서 '회사 가기가 죽기보다 싫다'고 느낄 수도 있는 심각한 노동권 침해 아닌가요? 특히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은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해자가 해고되기 전에 그 사람 때문에 고통 받고, 그만 두게 된 여성들도 있었을텐데 말이예요. 그 여성들을 생각한다면 '애정표시였다, 고의성 없다'며 처벌 안 하고, '주관적이다, 모호하다' 그러면서 인정 안 해주는 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애정을 표시한 거라니요? 그럼 스토킹도 '애정표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폭력을 애정표시라며 국가가 방관하면 안되지요. 이런 판결, 정말 유감이에요.

- 일하는 언니 이즈

반복적 성희롱은 해고 사유로 충분하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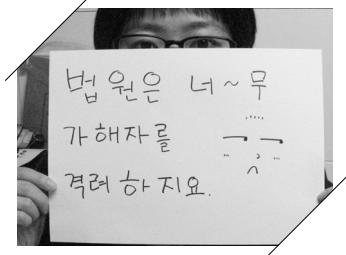
재판에 대한 뉴스를 보면, 마치 그런 행동들을 성희롱으로 안 받아들이는 여성이 있다는 걸 열심히 찾아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성희롱으로 느끼고 호소하는 사람들의 말은 믿으려 하지 않고요. 법원이 격려의 차원이었다느니, 애정을 표시한거라느니 하면서 남성 가해자의 행위 의도를 찾아주는 것 같아요.

피해는 당사자마다 각자 다르게 구성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런 버릇없는 새끼..'하고 속으로 욕 한마디 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업무에 크게 방해가 될 만큼 충격적이고, 상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 가해자는 알면서도 그러는 거잖아요.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호소하고 있다는 거, 가해자가 정말 몰랐을까요?

또 어떤 이들은 불쾌하고, 불편하지만 이게 '성희롱'이라는 이름으로 문제제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제기해봤자 이번 경우처럼 인정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불쾌감과 수치심 사이 여성들이 약자로서 느끼는 감정과 경험에 대한 언어들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성희롱이었다는 피해자의 호소들이 법원으로 가면 가해자를 옹호하는 언어, 가해자의 의도를 설명하는 말들로 바뀌고, 덧입혀지는 것 같아요. 결국 법원이 성희롱을 가볍게 보고 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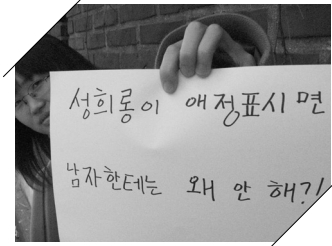
- 일하고 공부하는 언니 리토



언니들의 말, 말, 말

언제나 늘 생각하는 거지만 법원은 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가해 남성의 인권도 보장해줘야겠지만, 그렇다고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희생해서 가해자 인권 보장하자면 말이 되나요? 가해자가 해고되어 여성들이 성희롱으로부터 벗어났을 텐데, '격려와 애정의 표시였는데 해고는 부당하다' 라고 판결을 내리다니요. 그 피해 여성분들 지금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기들은 성희롱 당하는 위치에 안 놓여봐서 저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가해자에게 해고라는 판결이 부당했다는 생각 전에, 성희롱 그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부당했는지를 좀 알고 판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뽐뽐하고 끌어안는 게 성희롱이 아니라 '애정 표시'였다면 왜 남자 부하들에게는 안 한대요? 해 보시지? 왜 안 하시나?

- 언젠가 일하게 될, 공부하는 언니 박나운



내 생각은 그래요. 그것도 폭력이잖아요, 성폭력. 그리고 직장에서 옆 사람들 여럿 괴롭히는 거잖아요. 성희롱으로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들 사기를 저하시키면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니까 회사 입장에서 해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게 일종의 가해인데, 언제라도 다시 가해할 수 있는 사람 곁에, 게다가 전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 옆에 그 사람을 두는 조치는 일반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성희롱한 사람 해고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성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쉽게 해고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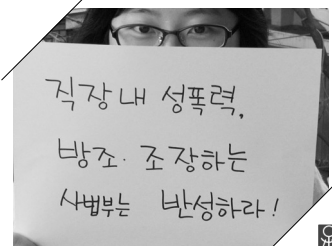
- 일하는 언니 룬

솔직히 여중, 여고 다니는 학생들은 학창시절마다 은근히 성추행하고 성희롱 밥먹듯이 하는 선생님들 한 명씩은 꼭 겪어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학생들은 잘 모르는 여학생들의 고충이라고요. 왜 여학생들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요? 사회에서 그저 방관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저 판결들만 봐도 남자 선생님이 '이 정도는 해도 되겠구나' 생각할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학습을 하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겠지요. 정말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이고, 자신의 직업을 잃게 할 수도 있는 잘못이라는 것을 실감한다면 충분히 계산적인 그들이 그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암묵적으로 '다들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아는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판결들이야말로 잘못된 학습의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법원이 성희롱을 방조하고, 조장하는 거죠.**

학교에서도, 졸업하고 직장에 가셔도... 이런 것만 배운 사람들이 위사람이라고 앉아서 헛소리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요. 이건 여성 전반의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 즉 그 책임이 사회에 있다는 것을 법원은 애써 무시하는 것 같아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그 권력, 포기하는 게 그렇게 싫은가보죠?

- 일하는 언니 아리송



판례
비평

성희롱에 대해 법원이 한 해고, 가혹한 처벌인가?

◎ 가법비판 판례소 문제지언론이전

1 성희롱과 역차별

“성희롱은 분명 나쁜 행동이지만, 성적 의도도 없는 사소한 실수를 성희롱이라고 몰아 세우거나, 정도가 약한 행위로 인해 낙인을 찍고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역차별 담론은 여성주의적 제도와 정책에 대해 가장 보편적인 반대주장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역차별 담론은 얼핏 보기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과 아울러 무고한(?) 남성의 권리까지 함께 감안한다는 점에서, 모두의 권리를 폭넓게 고려하고, 조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균형 잡힌(?) 관점을 바탕으로 여성주의적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나치게 대결적 구도로 본다든지, 감정적이거나 보복심리에 기인한 주장이라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불사한다는 의심과 비판을 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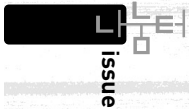
그러나 역차별 담론은 성희롱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논리적 전제와는 달리, 실제로 있어 주장되는 맥락을 살펴 보면 대부분의 성희롱 행위를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로 이어지면서 성희롱의 문제점을 부인하거나, 문제제기를 한 사람에게 “별 일도 아닌 일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식으로 성희롱의 불법성을 과소화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역차별 담론은 ‘성희롱은 불법이 아닌 장난, 사소한 실수, 직장생활의 원활유적인 요소’라는 가부장적 담론의 세련된 모습에 지나지 않는데, 이런 세련된 포장은 때때로 ‘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를 가지고 ‘판례’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동안 법원은 많은 하급심 판례들에서 성희롱 행위를 확인하면서 성희롱 담론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을 해왔으나, 최근 몇몇 사건들에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법원이 성희롱의 문제점과 불법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성희롱임을 인정하면서도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성희롱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결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은 공정하고 세심한 고려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살펴볼 대상 판결을 보면, 여전히 법원이 성희롱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으며, 성희롱의 문제점을 과소 평가함으로써 기본적인 사실해석조차 왜곡된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판례의 내용

성희롱 행위자(원고)는 XX생명 주식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여직원들에 대해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다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복직하였다. 회사는 원고에 대해 또다른 성희롱 행위와 성희롱 징계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을 하지 말라는 회사의 지시를 어겼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재차 해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성희롱 내용을 보면, 점심시간에 혼자 남아 팩스를 전송하고 있는 직원을 뒤에서 껴안고, 새벽에 술에 취한 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오빠야,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알지. 너는 나 안보고 싶냐.”라고 말을 하고, 지점장실에서 목과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거나, 토요일 저녁에 “집이 비어 있는데 놀러 오라”고 요구하고,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볼에 뽀뽀를 하거나 귓속말을 하면서 귀에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희롱 행위의 피해자는 모두 8명에 이르렀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었거나 왜곡·과장되었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내용이 경미하고 회사에서 20년간 근무를 하면서 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최우수 지점상도 수상한 것을 감안할 때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며 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행동이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직원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여 직장 내 일체감과 단결을 이끌어낸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많은 행동이 술에 취해 우발적인 것이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원고의 행동은 ‘그 동안의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고의성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3 판례에 대한 문제제기

(1) 성적의도와 고의

법원은 성희롱 행위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고 사회적 인습에 의해 형성된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의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판단은 세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먼저, 기본적인 사실해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술에 취해 수차례 전화를 하고, 귀와 볼 등에 뽀뽀를 하며 뒤에서 껴안는 등의 행동들이 과연 ‘직장 내 일체감과 단결을 이끌어낸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가? “오빠야, 내가 너 사랑하는거 알지”라는 언행이 성적인 의도가 아니라 ‘직원에 대한 애정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이는가? 법원이 해석하는 ‘성적 의도’는 어떤 것인지 의문이다.

두 번째 문제는, 성적인 의도는 성희롱 여부⁴⁾와 고의성을 판단하는데 주된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고의성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하는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인정이 된다⁵⁾.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희롱 예방교육 여부인데, 이 사건에서는 법원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었으며, ‘성희롱 예방카드’와 ‘성희롱 예방가이드 책자’가 배포된 일이 있었다.

즉, 성희롱 행위자(원고)는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문제된 성희롱 행위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은 더욱 현저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사회적 인습’ 및 ‘직장문화’를 고의성을 낮게 평가하는 근거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성희롱을 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그동안의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선언한 것이며,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한 것은 그러한 점을 구성원에게 명확히 인식시켜 잘못된 문화를 방패삼아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도 있다. 교육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행동양식을 수정하지 않고 오랫동안 성희롱을 지속한 것에 대해 불법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커녕 면죄부를 준다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기피하고 술을 많이 마실수록 약하게 처벌받게 되는 이상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2) 성희롱의 불법성에 대한 과소 평가

법원은 같은 지점에서 근무한 직원 중 2명이 ‘원고의 행동이 약간 지나치나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여 수치심까지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행동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2명은 징계사유에 포함된 성희롱 행위의 피해자들이 아니었다. 성희롱 피해자가 8명이나 되고, 일부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서 보고 있던 직원들도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직접 피해자도 아닌 다른 2명의 직원의 평가에 근거하여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희롱의 불법성을 과소 평가하는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성희롱의 불법성을 과소평가하였다는 점은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징계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에게 그 권한과 판단의 재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징계에 사소한 문제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을 하지는 않는다. 법률 용어로 말하자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정도에 해당해야 법적으로 개입하여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을 넘어,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⁶⁾이 그에 해당한다고 본다.

결국 법원은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건의 성희롱이 경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위반의 범위가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며, 이러한 판단은 그동안 법원에서 성희롱으로 인정한 많은 사례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불법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4 “성희롱을 원인으로 한 해고는 가혹한 처벌인가?” - 판례에 대해 문제제기 하기

성희롱이 인정되더라도 그 불법성의 정도는 행위의 유형, 지속성, 피해자의 수, 행위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예방 교육 등을 통한 성희롱의 인식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판단을 달리 한다. 또한 어떤 조직에서 성희롱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징계를 할 것인지 여부는, 조직에서 행위자와 피해자의 위치, 조직의 분위기, 내부 상황, 징계권자의 의지, 다른 구성원들의 반응 등 그 조직에 고유한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구체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성희롱에 대해 어떤 처분이 적정하고, 어떤 처분은 가혹한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며, 그 때문에 정확한 기록을 보지 않고 단지 판결문만을 바탕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판단의 근거를 충분히 판결문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은 법원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⁷⁾. 물론 기록을 통해 자세한 사정을 검토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

만, 판결문의 내용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비판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례도 역시, 문제된 성희롱 행위가 중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의사 및 직장 내의 분위기 등의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해고가 가장 최선의 결정이었는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문제적인 것은 성희롱을 하면 무조건 해고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희롱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있어서의 오류, 그리고 성희롱의 불법성에 대한 과소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뽀뽀를 하고 뒤에서 껴안는 행동이 '직원에 대한 애정 표시'이고, 8명이나 되는 피해자의 말대신 다른 2명의 말을 근거로 성희롱을 별 일 아닌 것으로 해석한다면, 굳이 성희롱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예방교육 및 시정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이다. 피해자들은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이후에도 성희롱 행위자가 같은 공간에 있게 될 경우, 또다른 피해나 보이지 않는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해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⁸⁾, 이러한 우려는 법에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해결될 수가 없다.

이번 판결과 같은 잘못된 판단은 성희롱을 입법화하고, 교육 및 예방활동을 통해 잘못된 사회적 인습과 직장문화를 바꾸려고 했던 그간의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번 판례 및 최근의 판례가 성희롱 판단에 있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으나, 법원이 성희롱 판결에 있어 좀 더 신중하고 올바른 판결을 하기를 바란다. ☺

1) 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6누9285 사건

2) 회사의 징계조치 결정기준을 보면 '위반의 범위가 크고 중하며 고의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징계해직, '위반의 범위가 중하며 중과실이거나, 위반의 범위가 작고 경하며 고의가 개재된 경우'에는 정직·강직, '위반의 범위가 크고 중하며 경과실이거나, 위반의 범위가 작고 경하며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감급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다.

3) 원래 성희롱 여부의 판단에는 '고의성'이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본 사례에서는 각주 2에서 보듯이 징계를 한 회사의 내규가 '고의성'의 정도를 양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법원에서도 이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된 것이다.

4) 성희롱관련법 및 판례는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이번 판결에서도 고등법원은 성적 의도는 없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성희롱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의도를 다시 고의성 판단에 개입시킨 것은 여전히 성희롱에 있어 성적인 의도를 중시하는 것으로 성희롱의 본질을 흐리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5) 이는 형법에 있어서의 고의·과실 개념을 차용한 해석이다(형법 제13조, 제14조). 회사 징계규정에서의 '고의성'의 의미가 형법과 같은 엄격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본적인 의미의 해석은 형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6)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7) 판결문은 그 자체로 논리완결적이어야 하며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법원은 판결로만 말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판결문 외에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대부분의 판례평석이 판결문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유독 성폭력, 성희롱 판례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만 그런 비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다.

8) 다른 지점이나 부서로 발령을 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규모가 되지 않는 회사도 있으며 행위자의 직위에 따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므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노평

재판부의 남성중심적 판단

◎ 성문화운동팀 오매

얼마 전 지난 2005년 발의되었던 스토킹 특례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폐기될 전망이다 하에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토론을 했다. 그 특례법안 자체를 옹호할 생각이기보다 스토킹의 문제를 알리고 싶었다. 반대 측 토론자는 어떤 맥락의 반대를 펼 것인가, 변호사라니 사법소극주의에 대해서 난해한 이론적 전개를 하려는 건 아닐까. 생방송 토론이 시작되자,

“법안의 내용이 너무 모호하고 허술합니다. 이러 다가는 모든 것이 스토킹이죠” “악의적이고 고 의적인 것만 처벌되어야 합니다” “(2회 이상이라 면) 전도하려고 찾아온 종교인이나 상품 팔러온 외판원이 다 스토킹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상상력, 그런 초점이라니. 내 상식으로 스토킹은 이미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다. 종교 인이나 외판원이 두 번째 찾아왔다고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오버인’들은 만나본 바 없다. 몇 달 째 계속된 폭행과 협박, 연락에도 가해자의 ‘사랑해서...’ 한마디가 악의성을 소각한다. 사건 자체가 원체 ‘모호’하여 기존 각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못 미친다고 되돌아온 일이 즐비하다. 모든 스토킹 사례를 동질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따위는 없는 세상을 가상하며 사회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까지 부인하신다면 나는 백번이라도 내가 접했던 스토킹 사건들이 사회적 방안을 얼마나 필요로 했는지 말할 수 있다. 걱정하시는 바는 여타 입안과정들과 마찬가지로 시행과정에서 불식될 거라고 점잖게 반론 했지만, ‘스토킹’이라고 했을 때 떠올린 상황, 내용, 감정이 전혀 다르다는 것은 새삼 놀라운 일이었다. 올해 성폭력에 대한 연이은 유감스러운 판결들도 그랬다.

가해자에게 온정을 선고함!

“그럼 두 번만 좋다고 대쉬하면 스토킹이란 말이야?” 생산적인 토론자가 아니라 스토킹이 되는 상황,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 자신을 쉽게 대입하는 많은 남성들처럼, 일부 판사들은 판결문을 통해 자신의 자리, 자신의 동일시를 드러낸다. 가해자 온정주의라는 표현은 범죄자에 대한 교화지향의 판결, 교육을 통한 반성과 개선을 촉구하는 회복적 사법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가해자의 범행맥락과 당시의 심정(?)을 더없이 잘 이해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석, 대변해주는 어떤 입장들을 말한다. 예컨대 10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한 판결은 다음과 같았다.

“피고인은 늘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피해자) 쪽으로 누워 (피해자)를 안고 잠을 자며 자다가 엉덩이를 만지거나 때리기도 하였던 사실, 당시 (피해자)는 만 9세의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서 아직 2차 성징은 나타나지 않았던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아버지로서 취중에 딸에게 다소 과한 애정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다소 과했달 뿐 딸에 대한 애정표시였다는 판결. 근거는 평소에도 추행을 해왔다는 것과 피해자가 2차 성징기 이전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아동 성폭력과 친족 성폭력 처벌 규정에 대한 은밀한 반란이다. 피해자와 신고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어디에도 없다고 숨겨주고 빼돌리는 재판부. 어느 자리에 존재하는가?

“(전력) 이와 같은 원고의 언동은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직원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여 직장내 일체감과 단결을 이끌어낸다는 의도로 보이는 점,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은 그동안의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고의성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 (2007. 10. 10. 서울고등법원)

이 판결은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가해자를 신고하고 해고를 요청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정면으로 대치한다.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가해자의 해고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애정을 표시하려고, 직장내 단결을 도모하려고, 왜곡된 사회인습의 영향으로 한 것이라든 판결은 마치 가해자를 구출하기 위한 가해자측 변호사의 사전

인수격 변명과 합리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의도를 어떻게 꿰뚫어 볼 수 있었나? 그 의도가 정말 성희롱의 악의성을 차감하나? 인습의 희생자로서 원고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 행동을 계속할 건가? 재판부는 어느 자리에서 누구에게 감정이입하고 있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명수 전 우리은행 여자농구팀 감독에 대한 판결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하게 분노하고 있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가해자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언론에 호소했고, 선수단이 일제히 감독을 명확히 처벌해줄 것을 탄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체육계에 만연한 감독 성폭력이 드디어 터졌다고 주목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6일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감독이 전과가 없는 점, △(사건 당일인) 전지훈련 첫날 평소보다 많은 주량을 마셔 만취한 점, △10여년간 국가대표팀을 이끌면서 농구계 발전과 국위선양에 힘쓴 점, △평생 농구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5000만원의 공탁금을 제출한 점, △혐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했다. 지위와 명예, 그로 인한 권력을 이용하여 선수에게 성폭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조 때문에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했을 때 자신의 미래와 진로를 걸어야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폐되어 온 일을 매우 어렵고 소중하게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대관절 농구발전과 성추행은 무슨 관계냐.


새출발을 위한 전제

감정이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 말할 수 없다. 문제이긴 커녕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을 살해한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쯤 들어본 적 있는 판사,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가해자를 믿어주어 반복피해를 입게 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판사, 도망가다가 너무 무서워서 가해자가 떨

어져서 어떻게 되었는지 돌아보지 못한 피해자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못하거나 안하는 게 문제이지 않은가. 누군가에게 공감하고 설득되는 일은.

도리어 문제는 법이 어떠한 이해도 공감도 없이 불편부당하고 공평정대하며 객관의 자리에 있다는 환상이다. 판사-검사-변호사의 순서로, 피고나 원고와 친밀할수록 재판정에서 지위가 낮아진다는 관찰은 법의 이러한 태도를 말해준다¹⁾. 그러나 어떤 맥락에 근거하지 않고 진공상태에 있는 존재란 없고 법의 수행자 역시 그렇다.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전제하지 않고는 상대방과 소통하기 힘들다. 재판부가 자신이 가진 남성중심적인 경험칙과 감정이입, 판단의 작용들을 찬찬히 돌아보고 성찰하는데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입장을 인정하게 된다면, 어떤 입장이어야 할까는 다음 과제다. 자신의 편견이 현실을 어떻게 가렸는가, 현실에 어떻게 작용했는가 좀 더 자세히 봐야 한다. 애써 신고하고 문제제기했던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회사 내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였는지 직원들의 노동권을 위해서였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성희롱 가해자에게 엄중조치했던 회사측 담당자는 앞으로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 8명의 팀원에게 성희롱 한 가해자는 복직이 되어 마음 편히, 새롭게 인정받은 명예로 잘 살고 있을까? 전직 농구감독은 술을 자제하고 농구 발전에 매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 그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풀이며 조신하게 행동거지를 돌아보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피해자들의 호통과 고군분투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그리고 그들의 수많은 동지들이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적어도 걸으려는 몇몇하고 공인받은 자의 태도로 임하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재판부의 새로운 출발을 촉구한다. 피해자들은 이미 어느 자리에서나 누구와도 싸우고 있고 매우 중요한 문제제기를 던지고 있다. 당신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하다. 

1) 나눔터 57호 기획특집 좌담 "반성폭력과 운동의 자리에서 법을 만나다"

쟁점과 입장

나눔터
info. in common

문화일보와의 기 싸움 3개월

◎ 본 상담소 부소장 이윤상



[사건 진행 경과]

- 9월 13일 문화일보에 신 씨의 성로비 의혹 기사 및 누드사진 게재
- 9월 13일 성명서 〈언론, 점입가경! -문화일보 신정아 씨 누드사진 전제에 경악하다〉 발표
- 9월 14일 항의 집회
- 9월 20일 문화일보 신정아 언론보도사건 규탄 및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 10월 1일 문화일보 공식 사과 및 책임자 징계 촉구 기자회견
- 10월 18일 문화일보 사과문 게재
- 10월 23일 편집국장 사표 반례로 출근 재개
- 10월 26일 편집국장 사표 반례 사유 및 재발방지 절차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 11월 5일 문화일보 측 구두답변
- 11월 12일 공개질의서에 대한 문화일보 측 답변 등 공개

학력위조 문제로 시작된 신정아 씨 사건이 느닷없이 성로비로 추측 보도되기 시작되더니, 지난 9월 13일 문화일보에 신 씨의 누드사진이 게재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 이후 누드사진 게재를 포함한 문화일보의 일련의 보도행태를 보며 우리 상담소를 포함한 여성단체 등이 규탄 성명서, 항의 집회 및 기자회견, 긴급 토론회 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보낸 시간이 벌써 3개월을 넘기고 있다.

■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있나?

이번 문화일보를 상대로 한 싸움의 궁극적 목표가 문화일보의 사과를 받아내거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만은 아니다. 사실 싸움의 대상이 문화일보에 한정된 것도 아니다. 더욱 중요한 싸움의 대상은 세상을 뒤덮고 있는 술한 오해가 아닌가 싶다.

그 오해 중의 하나가 '여성' 운동단체가 '선정성'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선정적인 것이 여성주의와 맞서는가? 나는 선정적인 것이 저급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반드시 정치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선정성으로밖에 승부할 수 없어서 결국 그걸 선택하는 꼴을 보면 '저것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에 딱하기까지 하다.

'사회적 윤리'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선정성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면도 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규범이라는 것이 있다. 개인의 누드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쯤은 폭넓게 합의된 사회규범의 영역에 포함될 것이니, 이 사건이 사회적 윤리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사회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여성운동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주요사안일까? 우리가 바르게살기 ○○도 아니고 말이지.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화일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어느 날 아침, 나는 사

무실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요지는 “여성단체여서 여성을 옹호한다는 느낌이 난다. 그 여성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어서 죄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단체에서 나서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여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하여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면 어떻게 하나”는 항의였다.

신 씨가 여성이어서 무조건 감싸고 돈다? 다른 오해들과 달리 마음이 복잡해지는 대목이다. 우리가 신 씨를 ‘비호’ 한 바는 없지만(우리에게 그럴 힘이냐 있겠는가?), 신 씨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학력 위조 의혹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위조된 학력을 가지고 성공한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한 배후세력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졌고, 배후인물이 남성임이 드러나면서 곧바로 성적 스캔들로 이동하였으며, 결국에는 누드사진이 국내 유수 일간지에 딱하니 실리는 사태에 이르렀다.



■ 여성,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으면 크게 다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 피해 사건도 아닌 문화일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것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이 사건은 단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일간지에 누드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흔들어 놓아서 문제인 것만은 아니다. 신 씨의 누드사진을 게재하면서까지 성로비를 추

측한 보도는 그보다 훨씬 복잡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적극적으로(혹은 합법의 선을 넘어서) 사회적 성공과 권력을 욕망하는 여성은 여성을 사적영역에 유폐시키고 남성들 간의 연대로 공고하게 자리잡은 공적영역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으니, 어떤 식으로든 지탄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바로 이것이 문화일보 사태가 우리에게 전달해준 메시지의 핵심이 아닐까. 신 씨가 ‘학력위조’라는 빌미를 제공하였으니 처벌수위를 결정하는데 더욱 자유로웠던 것이 아닐까 싶다. 필요하면 개인의 사적인 정보조차 국민의 알 권리 앞에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 가부장적 사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사회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개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위를 벗어난다는 것, 결국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권력구조에서 우리는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일련의 사태인 셈이다.


내가 현장에서 매일 접하는 성폭력 사건 또한 바로 이 성차별적 권력질서와 무관하지 않다. 현장에서 접하는 성폭력 가해자는 자신의 권력(상사-부하, 교사-학생 등)을 이용해서 각종 위협과 협박을 동반하여 가해행위를 하고, 대체로 그 가해행위는 피해자가 모든 것을 감수하고 공개할 때까지 반복된다. 그래서 학교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면 한 명의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피

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 중 한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피해를 공개하면(대체로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많은 절차가 진행된다. 가해자에게 그만하라고 애원해보기도 하고, 가해자를 어떻게 하든지 피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조용히 해결해보려고 하기도 하는 등) 그때부터는 가해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한 활동이 시작된다. 대체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발뺌 작전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에서는 바로 피해자를 유혹자로, 꽃뱀으로 둔갑시켜 자신을 피해자로 위치 지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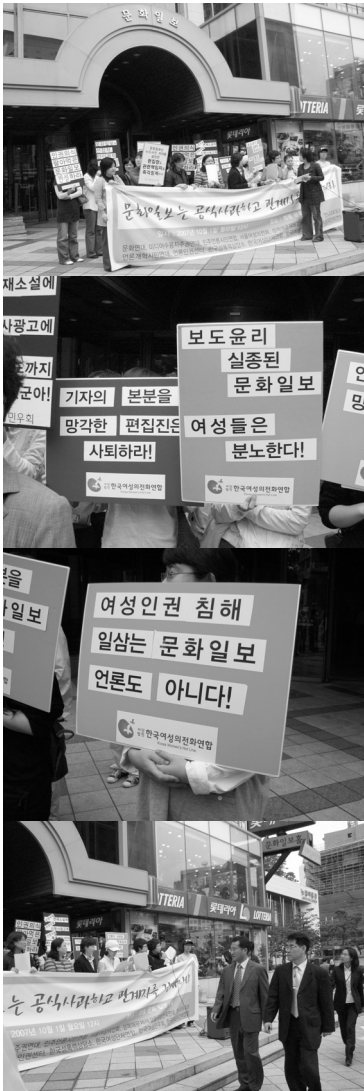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회적 권력을 손에 넣으려는 사람이 남성이면 '성취욕'을 가진 야망있는 사람이지만, 여성이면 '부적절한 욕망'을 가진 유혹자가 되기 십상이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압력에 저항하는 사람이 남성이면 '용기있는 저항자'가 되지만 여성이면 부적절한 욕망을 탐하다가 실패하여 발버둥을 치는 '꽃뱀'이 되는 것이다. 기존 질서에 위협이 되는 여성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사회, 그곳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성로비설과 정체 모를 누드사진이 마구잡이로 공개되고, 그런 행태들로 가부장적 사회권력이 다시 공고해진다. 여성운동을 하고, 반(反)성폭력운동을 하는 내가 참을 수 없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문화일보는 시민단체계의 반복되는 기자회견,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권고 등의 조치를 거치면서 내부총회, 노사간의 토론을 통해 드디어 지난 10월 18일 사과문을 실었다. 그 사과문을 통해 문화일보는 반성과 성찰의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반복해서 '알 권리'를 운운하였으며, '누드사진의 진위를 가리는 검증절차를 거쳤다는 점', '치밀한 취재를 벌였다는 점' 등으로 자기 행동의 진정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과적으로 선정성 논란과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하여 독자에게 충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유를 모른다는 건 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사과에 따른 그 어떤 책임있는 행동도 없었으니 전자는 후자는 기대할 바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뭐, 대응행동의 궁극적 목표가 일천한 문화일보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은 아니었으니 그리 낙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욱 중요한 목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권력관계가 다시 한 번 공고해졌다는 것을 우리 사회 구성원이 공감하는 것, 그래서 그와 유사한 사건이 앞으로 다시 발생한다 하여도 권력관계의 작동을 간파해낼 수 있으면 족할 것이다.

그 이후.

문화일보 편집국장의 사표를 반려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 상담소를 비롯한 몇몇 여성단체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무책임한 '구두 답변'만이 전해졌고¹⁾, 이어 11월 8일에는 각종 언론지에 신 씨의 누드사진은 합성인 것으로 판단되며, 신 씨는 문화일보를 상대로 10억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바로 다음날 합성여부를 검증한 바 없다는 검찰 측의 입장 번복이 이어졌으니, 결국 진실공방은 재판부에 맡겨진 셈이다. 이미 그들의 입맛에 맞는 방법으로 신 씨의 모든 개인정보가 구성되어 유포된 마당에 지금 와서 합성사진 여부가 무에 그리 중요하겠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만약 그것이 합성사진이라면 우리사회가 여성을 통제하는데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지 정도는 증명하는 셈이 될까? 

1) 이윤상(2007), "남성공화국, 그들의 마녀사냥", <문화일보 신정아 언론보도사진 규탄 및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자료집
2) 본 상담소 홈페이지 www.sisters.or.kr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입장글(2007. 11. 12) 참고



성폭력피해 생존자의 인공유산 선택권

◎ 본 상담소 소장 이미경

세계적으로 수 많은 여성들의 인공유산이 기혼이나 비혼, 동성애자, 이성애자, 계층, 종교 등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의 선택권(pro-choice) 대 태아의 생명권(pro-life)으로 대별되는 인공유산 논쟁. 역사적으로 여성의 인공유산 선택권을 위한 지난한 투쟁이 이어져왔고, 1995년 이후에는 북경 세계여성대회 등을 통해 각국 여성단체들이 의견과 정보를 교류하며 글로벌한 투쟁을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워싱턴에서는 세계 60개국에서 모인 수만명이 인공유산의 선택권을 주장하는 시위와 행진을 하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여전히 생명권자들의 종교적, 과학적 주장과 활동도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50만건의 인공유산이 추산되고 있음에도 여성의 선택권에 대한 논쟁조차 펼쳐지지 않고 있어 더욱 문제이다. 심지어 60~70년대에는 여성의 출산력이 국가발전을 막는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정부의 가족계획정책에 의해 초기 인공유산이 피임의 한 방법으로 장려되기도 했고, 남아선호사상에 의해 공공연하게 여자태아들이 낙태되기도 한다. 이처럼 여성의 몸은 국가의 정책과 가부장제의 상호작용 속에서 조정되고 통제되는 중심에 있다. 무엇보다 인공유산에 관한 법과 인식들은 여성들의 몸에 대한 통제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여성의 인공유산 권리를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선택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강간 피해생존자 중 임신이 되는 경우가 몇 퍼센트인가는 자세한 조사나 통계가 미비해 알 수 없지만, 상담현장에서는 드물지 않게 사례를 접하곤 한다. 강간피해로 인한 임신은 생존자들로 하여금 피해를 인식하고 분노하는 것조차 사치로 만들어 버린다. 하루하루 자라나는 태아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실존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생존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 시점에, 인공유산 여부를 먼저 ‘결정’ 해야만 한다.

이러한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인공유산은 형법에서는 불법이지만, 모자보건법에 의해 특별히 허용하고 있다¹⁾. 또한 정부에서는 성폭력 피해생존자에게 1인당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음 사례는 법과 현실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 6개월의 청소년가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 부모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는 생존자를 설득해 엄마와 함께 원스탑 지원센터인 경찰병원으로 연계. 그러나 병원에서는 강간임을 입증하려면 재판에서 가해자임이 판명되거나 최소한 고소된 사건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며 시술을 거부. 고소할 의사가 없었던 생존자는 결국 어렵게 동네 병원을 수소문해 이 사건을 고소하지 않을 것, 진단서를 요구하지 않을 것, 이후 병원에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을 것 등을 약속하고 자비로 인공유산을 함.”

- 2007년 본 상담소 상담사례

여기에서 관건은 ‘강간의 입증’이다. 병원측에서 요구한 재판에서 가해자임이 판명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보고 강간을 입증한다는 것은 결국 생존자에게 출산을 하라는 말과 똑같다. 따라서 재판결과를 보고 인공유산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리고 고소를 전제로 한다는 것도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고소율이 10%미만으로 추산되는 현실에서는 생존자의 권리찾기에 원천적인 걸림돌일뿐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사회의 인식이 “뭔가 당할만했겠지”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형사사법절차 상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로 인해 생존자들이 고소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강간으로 인한 인공유산의 합법적 허용기준은 모자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이 없다. 나아가 형법(제270조)에 의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인공유산을 시술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담당의사로서는 본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강간 입증'을 피해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게 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인공유산 허용은 실제로는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사문화된 규정에 불과하다. 사실 성폭력 피해로 인해 임신을 한 생존자에게 강간임을 입증하라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게임이다. 우리사회에서 자신이 성폭력가해자였노라고 자백하고 사죄하며 앞장서서 인공유산을 돕는 가해자는 거의 없다. 또한 성폭력 피해의 특성 상 둘만의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을 누군가가 목격하고 증인이 되어줄 가능성도 전혀 없다. 더욱이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피해직후 병원을 찾기보다는, 분노와 모멸감에 목욕을 하거나 옷가지를 태우는 등 스스로 증거를 인멸해버리곤 한다. 또한 우리사회는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을 의심하고 비난하면서 피해사실을 드러내는 것조차 막고 있다. 고소를 하더라도 기소율이 45%미만이고, 그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43%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강간 피해생존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 또한 국가가 성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지원하고 있는 의료비는 생존자로서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 역시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구조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는 결국 정부가 강간피해로 임신을 한 생존자들을 낙태수술비를 지원받으려 거짓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으로 의심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공유산을 여성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 있다. 여성들이 인공유산을 선택할 것인지, 아이를 출산할 것인지에 대해, 국가는 법과 도덕적 판단기준에 의해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마치 선심쓰듯 강간피해로 인한 임신은 인공유산을 허용하겠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여성의 권리 존중의 의미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1995년까지 성폭력을 다룬 형법 제32장의 제목이 "정조에 관한 죄"였음을 상기해보면, "강간으로 정조가 더럽혀진 여성의 임신"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정서가 깊이 반영되었을 뿐이다. 무엇보다 출산여부 결정에 태아와 여성은 동등하게 논의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권 대선택권으로 대치시키고 있다. 우리 여성들이 인공유산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자신이 갖겠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주장이다. 이러한 기본권이 보장될 때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도 생존자가 진정한 의미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1) 형법 제269조 : (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모자보건법 제14조 :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이 된 경우....

긴급행동 “ANTI- 훼손된 차별금지법”

◎ 여성주의상담팀 키라

>> 차별금지법이란?

차별 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한다는 입법 취지를 갖습니다. 법안의 내용 역시 차별에 대한 정의, 국가 및 지자체의 차별 시정 의무, 고용·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교육 및 직업훈련에 있어서 차별 금지 및 예방 조치, 차별의 구제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4년여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구와 외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노무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였지요.

>> 지금까지 어떤 일이?

훼손된 차별금지법, 법무부 입법 예고

법무부는 지난 2007년 10월 2일 차별금지법의 개략적 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그 동안 법안에는 차별 금지 대상으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31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대상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하여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이 삭제되었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해온,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전환과 같은 차별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항들이 빠졌습니다.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 구성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법무부에 '동성애는 사회질서를 무너뜨린다' 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하였다는 점, 10월 22일 몇몇 기독교 단체가 <동성애차별금지법안저지의회선교연합>을 발족하였다는 점 등 보수 기독교계의 발 빠른 움직임은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대상에서 삭제하게 한 주요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력 고용 시, 차별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폭 완화하고자 하는 재계의 로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와 그것이 훼손시킨 차별금지법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공동행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에 입각한,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다양한 액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관계자들과의 면담,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서 발송, 일인시위, 기습시위, 문화행사 등의 액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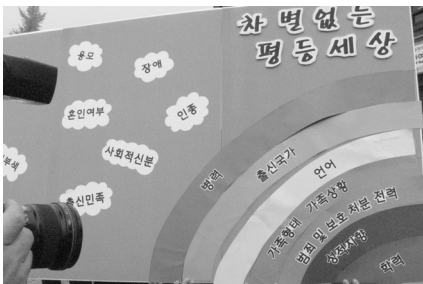
(www.lgbtact.org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무엇을?

차별 금지법을 계기로 성소수자 혐오 집단과 그 집단의 정치성이 한국사회에서 가시화되면서 유례없는 성소수자 단체와 개인들이 집결되고 공동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톤월 항쟁¹⁾이라고도 이야기되는 역사적 순간에, 우리 상담소는 어떤 지향과 내용으로 이 운동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동성애혐오를 노골적으로 가시화하는 집단들과의 전선을 긋는다면, 이는 “이성애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우리 상담소의 정치성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확장시켜 지난 <2007 추계한국여성학회>에 구성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우리 상담소는 <여성운동에서 여성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위의 <긴급 행동>과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된 <훼손된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11월 14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 사회 · 종교 · 인권단체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긴급 행동>에서 조직하고 있는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의 일인시위에 결함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와 동참을 바랍니다. ☺



1) 1969년 미국 뉴욕의 스톤월 인(Stonewall Inn)이라는 술집에서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을 박해하는 경찰에 저항하며 시작했던 '동성애자 해방 운동'의 시작으로 이야기됨

군대의 조건

◎ 성문화운동팀 오매

또 한 동성애자 병사가 현역부적합 심사 결과 전역조치 되었다. 근거는 극도의 우울과 불안, 자살위험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우 바라던 바였으나, 실은 결코 바라지 않던 바였을 것이다. 입대 전에는 없던 병이 생기고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고 정식 제대도 아닌 현역부적합 전역을 하게 되었다. 이 대단한 인생의 변주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 공식문서에 그 진실이 밝혀진 것은 없다. 그남들은 왜 ‘현역부적합자’가 되었나?

육군 *사단 모 이병에게 있었던 일

지난 1월 육군에 입대한 모 군은 자대 배치를 받은 후 분대장 하사로부터 “너 되게 예쁘게 생겼다” “한 침낭에서 같이 자자” “오늘밤에 내 침대로 와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꼬집힌다. 상병 A는 모 군 귀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좋아?” “넌 너무 여자 같다” 라고 말한다. 소대장 중위 B는 모군을 침대에 눕히고 올라타 이빨로 목을 깨물고 침을 바른다. 타분대 하사 D는 “여기 다방 아가씨가 한 명 있다”, “빨리 커피 타서 오라” 라고 말한다.

반복되는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해 피해자 모 군은 군의관에게 면담하였다. 수많은 가해자를 일일이 밝혀 말할 수 없었다. 모 군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방법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하는 것이었다.

이 때부터 시작되는 부대의 논점일탈과 책임전가, 호기심 만물상은 한편의 코미디다.

‘동성애자’ 병사를 ‘면담’ 하고 ‘상담’ 하고 ‘진료’ 한 군대 내 군의관, 대대장, 연대이사과장은 인권침해 당사자들이 되었다. “너네끼리는 너 같은 애들을 바텀이라고 한다지?” “부대에 특별히 마음 두고 있는 사람은 없느냐?” “너는 남들과 다르니 만지지 말라고 말해야 하나?” “인권단체에 알리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라” 등 인권침해 행위는 계속되었다. 국방부는 작년 4월 군대내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 사건을 인권단체에서 문제제기하자 「병영내 同性愛子 관리지침」을 시달한 바 있는데, 그 내용 중 일부인 ‘성경험 등 사생활 관련 질문 금지’ ‘아웃팅에 따른 불안감 해소 방안 강구’ 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꼴이다. 동성애자 병사 인권보호 지침이 되리라곤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인권단체에 알리지 말아라” 라는 대사가 추가된 것으로 보아 지침이 새로운 작용을 하기에는 뭔가 매우 역부족인 공간이었던 것 같다, 군대라는 곳.

성폭력 사건은 어디로 갔나

성폭력 사건은 사라졌다. 모 군이 성추행, 성희롱을 겪고 있다고 말한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성폭력에 대한 자세한 조사나 해결과정은 없었다. 오직 모 군의 동성애자 정체성만이 퍼져나가 회자되고 격리되고 치료(대기)되었다. 비전캠프¹⁾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을 때 비전캠프 행정담당관은 ‘나가 동성애자여서 그렇지 않냐’고 반문했다. 모씨의 어머니가 사건을 알게 되어²⁾ 휴가를 얻어 나오는 날에도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자 “그런 일은 없다” 고 해당 부대는 잘라 말했다. 대책위가 국방부에 보낸 공개질의서에 ‘동사안과 관련한 사실여부 조사결과, 인권위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문책사유가 있다면 규정에 의해 처리할 것임'이라고 뻔한 답변이 왔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대를 방문하여 피진정인 조사를 했을 때는 어떤 '가해자'도 찾을 수 없었다. 그 와중에 피해자에 대한 현역부적합 심사가 진행되었고 전역조치 결과가 나왔다. 현역부적합심사는 사실 모 군이 사건을 문제제기한 이후에도 한 차례 있었으나 당시 피해자는 참여할 수 없었고 결과는 탈락이었다. 동일한 심사가 진행되었는데 왜 그 때는 탈락되었는지 묻자, 당시에 피해자가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 자살위험 수치가 높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피해자가 극심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군대는 인권침해 공격을 퍼부었고, 인권단체가 문제제기하자 전역 조치와 가해자 조사를 맞바꾼 모습이다. 이대로는 어느 문서에도 모 군이 왜, 어찌하여 현역부적합이 되었는지, 그 원인이 기록되지 않을 전망이다.

가해자가 되어 남성으로 거듭날지어다

부대의 거짓말과 가해자들의 침묵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성폭력 사건은 사라지고,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만이 남아있고, 그가 마침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부대가 주목한 유일한 사실이라는 이러한 시나리오는 하루 이틀의 것이 아니다.

군대의 이러한 집단적인 가해자 정체성은 사건 자체에서도 볼 수 있었다. 부대 안팎의 장교부터 선임이병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괴롭히고 성희롱하는 일은 모

두가 공유하고 실행한 일상적인 행동이었다. 이 때 그들이 붙인 나름대로의 이유는 피해자가 '너무 여자같고' '되게 예쁘게 생겼으며' '다방아가씨 같기'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그

들의 행동은 공식적으로 성폭력이 아니었다. 소대장 중위 E는 피해자를 간부실에 불러 이렇게 폭언했다. "왜 여자처럼 잘 우냐. 한 번 더 내 앞에서 울면 귀싸대기를 때리겠다. 남자답게 굴어라".

성희롱하고 가해하는 병사들을 불러 '너 다방아가씨에게 성희롱한 적이 있다는 거냐' '한번 만 더 다른 병사를 괴롭히면 귀 싸대기를 때리겠다', 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남자답게 굴어라'.

남자답게 굴어라? 모 군은 남자이다. 징집대상자로서 생물학적인 남성이기도 하고³⁾, 게이이기도 하다. 그러나 군대가 말하는 '남자답게'는 자신의 정체감, 자신의 성적지향, 자신의 삶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하고 있다. 일상적인 가해에 모조리 동참하는 것은 사건도 될 수 없는, 문제제기 자체가 안 될 만큼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그것에 대해 울고 상처를 입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다. 한 마디로 폭력, 폭언, 타인에 대한 성적 폭력을 군인의 조건으로, 남성되기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에 맞게 남자답게 굴면 해결되었을 일을 피해자는 거부하였고, 군대가 주문한 '남자되기'를 거부하자 해당부대는 결국 현역(군인)이 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퇴짜를 놓았다. 부적합의 사유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 자살위험⁴⁾에 이르게 된 성폭력, 인권침해의 사건은 정상적인 군인들의 당연한 행동이었으므로 공중에서 가뭄히 사라졌다.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15.4%의 응답자가 군대 내에서 성경험 공개 강요, 신체비하 및 욕설, 포옹, 가슴 및 엉덩이 만지기, 성기만지기를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4.4%만이 신고한 적이 있고, 가해자의 81.3%가 피해자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가해자의 가해 이유에 대해 장난삼아(54.2%), 애정표현(29%) 등에 높게 응답하였으며 성폭력을 사소화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는 있지만 피해자는 없는 것이다. 가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되



기를 선택한다. 희생자가 없다는 것은 모두 동일한 남성만 있다고 전제하는 것인데, 희생과 폭력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폭력을 함으로써 폭력을 폭력이지 않게 만든다는 원리다. 폭력에 가담하라, 그것이 곧 우리다!

‘우리’를 깨고 피해를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그는 군인이 아닐 것이다. 남성이 아닐 것이다. 피해자의 커밍아웃은 절묘하게 이에 들어 맞는다.

보면서, 군대가 어떠한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지, 어떠한 ‘남성되기’를 형성하고 그것을 세상에 이식하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는다.

국방부가 스스로, 대한민국이 스스로, 고민하고 곱씹어야 할 일이 많다. 더 많은 피해자들의, 자기 경험을 새롭게 느끼기 시작한 많은 그남들의 고발과 증언이 있어야 한다. 성폭력 인권침해가 공중분해되는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에 기반한 군대’는 과연 가능할까

인권이 기반이 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군대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요구일까. 동성애자 관리지침의 폐기, 인권지침의 개발, 인권교육의 의무화를 요구하면서 드는 의문이다. 성폭력 인권침해가 공중분해되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또한 제대한 군필자에 대한 보상과 사회복귀를 호소하며 군필자 가산점 제도 부활을 외치면서도 정작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군대가 그렇게 젊은 날의 청춘을 씹히는 무덤이라면서도 군대와 징집을 거부하기는커녕 병역의 의무를 신성시하고, 군복무하지 않은 사회 다른 구성원들을 이등시민으로 만들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1) 부대 부적을 병사들을 일반 병사들과 격리시켜 생활하면서 군의관 치료 및 군중상고 상담을 받는 곳 (군대내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규탄과 군 당국의 조속한 해결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자료, 2007년 10월 24일)

2) 부모에게 연락한 것 역시 본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졌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후 2007년 11월 2일 2차 기자회견에서 편지글을 낭독한다. “모든 부모가 군대가 이런 곳 인줄 안다면 어떻게 나라를 믿고 아들을 맡길 수 있었어요. 군대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인정하지 않고 본인의 진술을 묵살하고 자라나는 새싹을 짓밟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동성애자이기도 하지만 이진 범죄가 아니라 성취향이 다를 뿐인데 이렇게 참혹하게 짓밟힐 줄은 몰랐습니다.”

3) 사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이기 때문에 징집대상자이고 그것이 곧 스스로 남성이라는 것은 옳지 않은 등식이다. 대한민국 국가는 트랜스젠더들에게 신분등록상 성별을 전환하는 경로를 열어두고 있지 않다. 트랜스젠더 뿐 아니라 남성/여성에 갖지 않는 다양한 성적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여성 아니면 남성의 이분적인 성별 등록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기정체감과 무관하게 남성으로 신분등록된 이들은 대한민국 군대의 징집대상이 되고 있다.

4) 「평영내 同性愛者 관리지침」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역조치하는 것을 불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집단적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더 큰 폭력과, 더 큰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어야 한다는 심각한 모순은 획기적인 국방부의 대책이 없는 한 반복될 전망이다. 폭력의 피해자임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의가사 제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역부적합이라는, 군필자가 아니어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전역방식에 내몰린다. 그마저도 부대는 원칙없이 눈치만 한껏보다 결정한다.

거꾸로뉴스

나눔터
info. in common



올 한 해 대한민국 각계의 성폭력 10대 뉴스 !

2007년

◎ 온라인사업팀 아름

직장 내 성희롱, 오락가락하다 뒤로 가는 사법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남자 직장인들끼리 ‘음료에 약을 타서 어떻게 해보지 그랬느냐’고 발언하는 것도 성희롱이라고 했는데, 법원은 ‘술 따르라’는 말이나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일은 성희롱이 아니란다. 한편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최연희 의원은 ‘고령에다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용서했다’니 그냥 선고유예, 소속 팀 선수를 강제로 성추행한 박명수 전 우리은행 여자농구팀

감독은 ‘전과가 없고, 만취 상태였으며 농구계를 위해 힘써왔으니’ 집행유예!

아무리 판사들의 성인지 수준이 가지각색이지만, 이렇게 오락가락하다가 심보후퇴를 해 버리다니. 이대로 가다가는 성희롱은 ‘하면 욕 좀 먹지만 큰 벌 받을 일은 없으니 해볼만 한 일’인 줄 알겠다. 아차, 판사들은 이미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다.

언론도 이지경, 문화일보 사태!

문화일보는 9월 13일자에 신정아씨의 누드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으며 이를 입수에 3면에 게재했다. 우리 상담소를 비롯한 여성계는 아무런 이유 없는, 아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성명 발표, 항의 시위 등을 벌였고, 10월 18

일 문화일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였는데 문제라고 하니 미안’ 식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문화일보가 사회적 권력을 가지려 하는 여성의 노력을 비웃기 위해 얼마나 무식하고 단호한 ‘주홍글씨’ 낙인을 찍고 싶어 안달이 났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정치계,

국회의원들부터 이러니
문제가 심각하긴
심각하지요?

술자리에서 여기자 성추행으로 기소되어 작년 11월 10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던 최연희 의원이 지난 6월 14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임에 따라 처벌조건이 현저히 악화됐다"며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밝혔다.

작년부터 박계동에 최연희에... 여성의 몸을 제 물건인 양 다뤄도 된다고 생각하는 저런 수준의 의식을 갖고 국회의원이라니 참 이 나라 국회가 한심하다. 최근에는 국정감사 의원 성접대 의혹까지... 이쯤 되면 남성 국회의원들 뒤쫓아는 대충 저런 수준이라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겠군.

성추행을 하고도 의원직을 계속할 수 있는 사회에서, 법원과 국회를 어떻게 믿고 사법과 입법을 맡기라는 건지? 그래서 아직도 성폭력 범죄 신고율이 10%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

대통령 후보도 이 수준! 이명박 후보 말 들어보세.

2007년 8월 3일 청주 예쁜 여자를 고른다더
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 라. 왜 그럴까 생각해
선후보 합동연설회 자 봤는데 얼굴이 예쁜 여
리에서 정우택 지사가 자는 이미 많은 남자들
“예전 관찰사 였다면 이..... 그러나 얼굴이
관기라도 하나 넣어드 될 예쁜 여자들은 서비
렸을 텐데”라고 하자 스도 좋고.....” 이따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말을 했다고.
후보는 “어제 온 게 정 대통령 후보까지 나와
지사가 보낸 거 아니었 서 이런 식의 대화를 마
냐?”라고 답변했다고. 음 편히, 거리낄 것 없
그리고 2007년 8월 이 하다가 걸리고도 계
28일 서울 시내 한 중국 속 지지율 유지할 수 있
음식점에서 중앙일간 는 우리 사회, 그 속에
지 편집국장 10명과 술 서 여성인권운동 할 생
자리를 갖던 중 인생의 각 하니 기운이 빠진다
지해랍시고, “현지에서 고 해야 하나, 아주 그
가장 오래 근무한 선배 냥 치솟는다고 해야 하
는 마사지걸들이 있는 나.....
곳을 갈 경우 얼굴이 덜

의료계,

이런 의사는 가차 없이
썰라야 하지 않나요?

지난 6월 26일에는 한 과 의사처럼 아예 ‘마취’
내과 의사가 수면내시경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온 을 행하는 것, 너무나 있을
여성 환자들을 전신마취 법하다. 하지만 현행 의료
시켜놓고 상습적으로 성 법상 형사 처벌이 되더라
폭행해 오다가 간호사들 도 ‘성폭행을 사유로 의사
의 신고로 구속되었다. 내 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과 진료과정에서의 성폭 불가능’하단다. 국회의원
력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이나 의사나... 권력 있는
청구되기는 처음이라지 남성들, ‘이 정도의 일’은
만, 산부인과, 성형외과부 기반 흔들릴 일 아닌가보
터 한의원에 이르기까지 다. (유치원 교사가 위력을
의사에 의해 일어나는 성 사용하여 아동을 성추행
폭력은 사실 어제 오늘 일 하면 향후 10년 동안 동일
이 아니다. 믿고 내 몸을 직종에 취직하지 못한다.
맡겨야 하는 의사 앞에서 의사는, 국회의원은 확실
환자는 작아질 수밖에 없 히 위력보다 센 권력을 든
다. 이 엄청난 권력관계를 든히 손에 쥐고 있나 보
이용하거나, 심지어 저 내 다.)

가짜뉴스 _ 2007년 10대 뉴스

‘여름철 성범죄 예방 가이드’에서 드러난 경찰청의 사고방식

경찰청이 여름철을 맞아 특별히 제작, 배포한 성범죄의 표적이 되니 조심하
죄 “예방 가이드”. 달빛시 고, 어둡고 으스스한 밤길
위하는 날에 맞춰 기사나 나 지하주차장은 위험하
나와 타이밍은 좋았지만, 니 알아서 조심하고, 만약
내용은 정말 좋지 않았다. 을 위해 집 앞에서도 마음
성폭력 피해자 유발론에 이니 조심하라는 가이드
입각한 ‘염려하는 척 통제 를 보며 한숨과 짜증이 났
하기’로 가득했던 것이다. 다. 결국 피해자의 어떤 행
지나친 노출의상은 성범죄 동이나 조심성 부족으로
인해 성범죄가 발생한다 고 믿는 경찰청의 가이드
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 기는커녕 광장과 거리에
서 알아서 몸을 숨기고 집 안 구석 구석에 들어가 있
으라는 답답하고 고루한 뻔소리일 뿐이었다. 왜 그
래야 되는데? 결국 광장과 거리는 언제나 가해자로
둔갑할 권리가 있는 남성 들의 공간이라는 소리?
2007년, 아직도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은 이런 생 각을 가진 경찰을 만날 수 도 있다는 불안 속에서 신 고를 해야 한다.

전자팔찌 제도 도입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08년 10월부터 성폭력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상습범이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성폭행한 사람은 최대 5년간 전자팔찌 또는 발찌를 차게 된다고 한다.

강수(強手)를 두둔,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는 전자팔찌 제도를 선결되어야 할 어려운 문제들에 앞서 통과시켜 버리는 행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보이게 한다. 이미 있는 법안들도 성차별적 인식을 가진 일선 형사, 법조인들에 의해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아직도 법은 성폭력을 친고죄

로 규정하여 사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다. 이런 때에 중요한 것은 전자팔찌라기 보다는 성폭력이 하루 빨리 저지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임을, 우리 사회의 문화 속 성차별적 결점에 의한 것임을 법 절차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보완 없이 국가가 ‘전자팔찌’와 같은 법령을 재빨리 세워 착착 통과시키는 것은 스톱킹 처벌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먼저 현행법부터 제대로 지키라. 일선 형사나 법조인들이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절차를 수행하라.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법에 반영하라.

‘체육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 나온다고?

평소 술자리에서 ‘나는 톱살롱에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W은행 여자 프로 농구 전 감독의 성폭력 사건이 지난 해 세상에 드러난 이후, 올 6월 27일 한국여성민우회와 문화연대가 ‘스포츠 하는 여성을 위협하는 폭력과 차별, 이에 맞서는 아주 상식적인 대안들’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여성운동선수에 대한 성폭력문제를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부 조영권 체육국 주무관은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 줄 오늘에서야 알았다”면서 “여성감독 및 코치의 쿼터제 등용과 더불어 감독, 코치, 선수들 모두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조치를 당장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노력의 결과일까. 이르면 내년 3월, 문화관광부에서 ‘체육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될 거라고 한다. 일단 올 연말까지 16개 종목 1500명 여성선수에게 성폭력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그간 또 다른 여성 인권의 사각지대였던 스포츠계에서, 언니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다른 공간, 다른 관계를 만들어 내는 희망의 물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가해자 신상정보 확대공개

지난 8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내년 2월 4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실제 거주지 등이 공개된다. 지금까

지는 이름,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만 공개돼 왔고 구까지)만 공개돼 왔고 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로서 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의 장은 범죄자

의 성명, 나이, 상세주소, 직업 및 직장 등의 주소, 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로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

을 받은 자, 법원에 의해 열람(공개) 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의 변화(주민등록번호, 소유 차량 등록번호 포함)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한다.

2001년 8월 1차 신상공개 이후 지금까지 신상공개자는 모두 6519명에 달한다고 한다.

경찰이 성폭력 가해, 경악!

9월 13일,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로 몰래 촬영을 시도하던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서 소속 경위였다. 9월 19일, 경기도의 한 주차장에서 여성들을 납치하여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범인이 체포되었다. 그는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19년 경력의 현직 경찰관이었다.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이같은 범행이 던져준 충격과 실망은 컸다. 그동안 성폭력피해 여성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2차 가해를 하던 몇몇 경찰들을 보며, 경찰들도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가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은 짐작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충격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경악!

변 외 뉴스!

여성인권단체들, 이런 세상에 맹반격하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우리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을 진행하였다. 이 운동을 통해 강도 높은 폭행이 동반되어야 강간임을 인정하는 최협의설, 아내강간 불인정, 성폭력 판단기준의 비장애인 중심성, 아동성폭력에 대한 쟁점 등에 대한 판례비평을 주기적으로 검사와 판사들에게 발송하여, 보수적이었던 대법원 판결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지난 9월 28일에 성폭력 사건의 판결문 등에 나오는 ‘욕정을 일으켜’ ‘욕정을 못 이겨’ 등의 문구를 삭제하라는 요청서를 전국 사법기관에 보내 이같은 문구들이 △성폭력을 폭력이 아

닌 통제불가능한 성욕의 분출구로 설명하고, △남성이라면 저지를 수 있는 사소한 실수로 인식시키고, △피해자유발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을 알리며 변화를 요구하였다.

성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법 영역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점들을 짚고 변화 가능한 지향점들을 모색하는 책, 「성폭력, 법정에 서다」가 올해 2월 출간되기도 했다. 이 책은 성폭력 범죄의 법적 판단기준, 공소시효, 친고죄 조항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여성의 언어와 경험 및 법여성학적 관점에서 성폭력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하는 내용을 담아내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푸른사상사)

또한 전국성폭력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협의회에서는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활동을 통해 경찰, 검찰, 법원의 수사 태도와 판결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수사 단계에서의 2차 가해나 편견에 근거한 부당한 판결을 비판하였다.

이 밖에도 성폭력피해생존자 말하기대회 다섯 번째 행사인 ‘언중유희(言中有喜) - 이리오너라, 씹고 놀자’ (11월 3일 홍대 ‘상상마당’), 전국 각지의 밤길되찾기시위(7월 중) 등을 열어 이러한 세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자기치유와 해방의 에너지를 확인하며, 앞으로도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다졌다. 

상담실에서

〈조건만남과 성폭력 상담〉 사례연구 시간을 함께하며

◎ 막달레나의집 현장상담센터 김주희

나눔터
survivor's voices

1. 들어가며

지난 10월 26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근 활동가, 상담원 선생님들과 ‘조건만남과 성폭력 상담’이라는 주제로 사례연구 시간을 함께 보낼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상담원 선생님들은 ‘성폭력 피해의 다양성’을 주제로 말문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이때의 피해가 ‘남성과의 성적 거래의 협상이 실패한 것에서 기인한 피해는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 만한 사례와 직면할 때 어떤 지향과 정보를 가지고 내담자 여성을 만나면 좋을지 고민된다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에인대행 계약과 같은 조건만남을 결심한 내담자 여성과 성폭력 상담원이 어떤 방식으로 만날 수 있을 까에 대한 고민은 상담 현장에서의 매우 현실적인 고민일 것이다. 요사이 제도화된 여성단체, 그리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나는 이러한 조건만남에서 기인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들과 사례연구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오래 생각하였다. 2004년 발효된 성매매방지법은 금지와 범죄화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법이고 강제적 성매매에 연루된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자발적 성판매자의 경우는 처벌이 따를 수 있다는 이야기 정도로 이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발과 피해의 경계가 모호한 성폭력 상담 시 이용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니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가 오래 관심을 가지고 있던 ‘성판매 여성’이라는 범주(혹은 이 범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

였다. 그래서 성판매 여성이라는 범주에 대한 동일시의 공포가 내담자 여성이 자신의 피해 상황을 사후에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성폭력 상담소 활동가들과의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2. 내담자의 증명방식에 직면하며

‘자발적 성판매가 분명한데, 단지 협상에 실패한 것을 성폭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라는 다소 직접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이러한 질문은 ‘여성의 성적 피해의 경계는 어디까지 인가? (협상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피해는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과 맞닿을 수 있고 또한 이는 ‘여성에게 섹슈얼리티는 무엇인가? (거래의 수단으로서의 섹슈얼리티와 피해를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섹슈얼리티는 같은 것인가?)’라는 광범위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내담자 여성들은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경우 자신의 피해를 설명할 적합한 언어를 찾는 와중에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선택한다. 적지 않은 성판매 여성들이 화대를 받지 못한 상황을 ‘성폭력’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여성들의 피해와 관련된 언어 없음에도 주목해야 하지만, 여성들의 피해가 고정불변의 무엇이라기보다는 사후의 주변 맥락과 경합하면서 구성되는 속성에도 주목해야한다. 현재 발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피해의 정도는 축소되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하는 것이다. 여성들이 사후 자신의 ‘피해’를 언어화하는데 있어 성적 거래라는 초기 계약은 그 계약이 변질된 순간 이미 종결된다. 상담을 요청한 여성은 상

대 남성을 가해자로 신고하는 길이 지난했던 사적 계약이 종결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내담자 여성에게 성매매라는 키워드는 이 사건이 유발된 동기일 뿐, 결과가 아니다.

여성에게 성은 일반적으로 '훼손'과 관련된 몸에 새겨진 것으로 인식되지만 사실 모든 상황에서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여성의 성적 순결함이 강하게 요구되던 시대에도 훼손된 여성의 물적 상태가 가족, 민족이라는 보다 더 순결한 명제들에 의해 가려진 역사도 있다. 이처럼 때론 성매매는 이해(excuse)가 가능한 동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의 언어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내담자에게 성매매라는 키워드는 행여 자신을 성판매 여성으로 정체화하게 될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 때 여성은 자신이 '어떤 여성' 인지 증명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피해는 동일한 흰색 도화지에 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깨끗한 종이, 더러운 종이라는 구분은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가장 큰 동력이며, 같은 흠집이라도 그것이 어떤 바탕의 종이 위에 칠해지는가는 보는 이로 하여금 착시현상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던 상태도 아니었던 여성은 자신을 성판매 여성으로 정체화할 이유가 하등 없다. 내담자 여성은 성적 거래를 이번에 처음 시도했다고 말하는 등 '평범한' 여성임을 강조한다. 이것은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시긴 했지만 성폭력 상황에서 자신에게 저항의지, 행동이 있었음'을 끊임없이 증명해 내는 여성들의 자기방어와 다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3. 그렇다면 내담자 여성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성매매, 성폭력 상담(내담자와의 만남)은 정교한 여성주의적인 인식론, 성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현상 중의 하나이다'는 종류의 명제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성을 팔겠다고 결심했던(결심한) 여성의 존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내담자 여성이 상담 이후에 어떻게 하면 성판매를 지속하지 않을지'를 걱정하고 있다면 이런 걱정을 하는 '나'는 누구인지 먼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섹슈얼리티가 여성 일반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작년 9월부터 이태원 기지촌 지역에서 클럽 종사

여성들과 만나고 있다. 이 여성들과 나는 무수한 차이를 가진 존재인데 특히 성판매를 결심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 입장, 토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나는 왜 성을 팔지 않는가? 혹은, 여성과 함께 클럽에 있는데 외국인 남성이 나와 술을 마시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나는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이 아니다"라고 대답하기 보다는 "나는 오늘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왜 이 여성과의 관계 고려했을 때 보다 괜찮은 방식이라고 느낀 것일까? 이러한 질문은 클럽 여성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한 차이에 대한 성찰일 것이며 소통의 시작일 것이다.

이러한 소통의 시작과 관련하여 사례연구의 말미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한 상담원은 조건 만남과 관련하여 매일 상담을 요청한 여성의 글의 행간에서 짜증이 느껴졌다고 이야기했다. 자신의 피해사실이 조목조목 명시된 상담글은 왜 이런 짜증나는 일로 가해 남성과 아직도 얽혀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뉘앙스였다. 하지만 이 어투는 피해 서사에 집중하다보면 쉽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었다. 상담원은 이 행간을 집어내며, 여성을 상처받은 피해자로 존중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일들을 나열하는 '모범적인' 답변 보다는, 예를 들어 '당신이 기싸움에서 우위를 선점한다면 남자는 당신을 자발적 성판매자로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식의 지지가 오히려 현실적인 상담일지 모른다고 이야기하였다.

4. 나가며

자신이 가진 모든 조건을 자원화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 정치아래 섹슈얼리티를 자신의 자원으로 만들어 내는 여성들의 생존방식은 어찌 보면 전혀 낮은 일이 아니다. 성매매에 있어 여성의 자발적 선택 부분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중요하다고 각인시킨 것들을 다시금 뽕뽕 안고 있는 꼴일지 모른다. 그 보다는 폭력에 대한 감수성, 여성이 현재 피해를 구성하는 맥락, 권력관계에 대한 불편함에서 시작된 고민이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여성들의 자기 서사의 행간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활동가들이 모여 자신의 활동적 지향과 관련된 심오한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한국성폭력상담소에 감사한다. ☹

생존자 말하기

[편집자주] 생존자의 목소리 코너는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투고로 연재 혹은 단회, 독자와 만남을 갖습니다. 글 보내주실 곳은 ksvrc@chol.com입니다. 이번 호에는 '水'의 연재수가 일곱 번째 이야기가 실립니다.

연재 7th

그 속에서 무시하기

◎ 水

징그러운 초경통을 겪고 난 나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내 눈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귀엽지도, 사랑스럽지도 않은 아무튼 어린애가 아닌 그렇다고 어른도 아닌 이상한 존재가 되었다. 몸은 아직 어렸지만 몸은 어른들이나 겪음직한 일들을 너무도 짧은 시간동안 몰아서 겪고 있으니 정신이 몸을 못 따라 가는 듯 했다. 아니 따라가고 싶지 않은데 어저지로 끌려가면서 버거웠다.

이후 말이 더 없어지고 병어리처럼 사는 습관이 몸에 붙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이 힘들다고 징징대는 것들은 다 하찮게 보였고, 우스웠다. 뭐, 고까짓거 가지고 저러나 싶고, 모든 것이 맘에 들지 않았다. 왕따 생활은 더욱 심해졌지만, 나는 오히려 그게 편했다. 이 학교에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아이나 선생님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외롭게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중학교는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가야했다. 그 사람은 내가 버스를 타고 혼자 다니지 못하게 했다. 그 사람은 모든 일을 뒤로 하고, 매일 아침 나와 함께 학교 가는 버스를 탔다. 한시간에 4번 다니는 버스와 학교가는 시간이면 버스가 터져버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탔다. 버스를 타면 바로 그 사람은 뒤에 딱 붙어 서서 내 엉덩이에 그 더러운 물건이 닿게 했다. 버스 안에 많은 남자들의 몸이 닿을까봐 걱정되어서란다. 그러면서 매일 내 귀에 대고 이 세상 어느 아빠도 딸에게 하지 않을 말을 해댔다.

“이년 눈 돌아가는 것 봐, 이년. 지 에미랑 똑같애”

“야 이년아 저 새끼가 붙잖아, 여기 내 앞에 서 있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만원 버스에서 그 사람은 내 귀에만 들릴 정도로 미친놈 뽀소리를 해댔다. 아마도 나는 이때부터 그 사람을 무서워하기 보다는 우스워하고, 무시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물론 매맞는 게 무서워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내 속은 그랬다.

그 사람의 개소리를 확성기로 크게 들려주는 의미로 여기 쓴다. 혼자 들었을 때는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엄마가 이랬나?’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이 또라이였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매일 나를 따라 버스를 탔다. 학교가 끝날 때도 거의 매일 학교 앞에서 나를 데리고 가기 위해 서있었다. 뭇 모르는 선생님께서는 내가 몸이 약해서 아빠가 지극정성으로 나를 키우는

걸로 오해하셨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 나란 존재,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괴롭힐 것을 가지러 온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렇게 점점 물건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학교를 다니면서도 친구를 만드는 것은 점점 어려워졌다. 사람이 친구를 사귀는 거지 어떻게 물건이 사람을 사귄 수 있겠는가. 왕따를 당하던 초등학교 때와는 달리 서로 다른 학교에서 온 아이들과 섞인 반에서 한 두 명 말을 걸어주는 아이도 생겼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없었다.

“나는 너네 들하고 수준이 맞지 않아서 말을 못 하겠어”

나는 늘 아이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다 끝에 가서는 이런 말을 했고, 아이들은 그런 나를 재수없다고 했다. 내가 말한 수준은 고민의 수준이었는데, 내가 보기에 좋은 가정에서 그냥 그냥 사는 아이들도 의외로 고맙고 기쁜 일들보다는 불평이나 기분 나쁜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아이들의 고민은 주로 성적과 좋아하는 오빠들에 관한 것이었다. 나에게 그런 고민은 수준에 맞지 않았던 것이다.

중학생이 되어 처음 배우면서 좋아하게 된 과목은 영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책을 달달 외우다시피 읽었다. 공부를 잘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발음이 듣기 좋아서 계속 더 했던 것 같다. 학원 같은 곳은 보내주지도 않았다. 재미가 붙어서인지 열심히 했고, 영어선생님께셔도 잘 한다고 계속 칭찬해주셨다. 학교에서는 공부만 잘하면 선생님들께 이쁨도 받고, 아이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걸 파악한 나는 더 열심히 했다. 집에서는 그 사람과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어 공부할 시간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번도 졸지 않았다. 정말 수업시간에 졸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내 친구들은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 때 우리반 아이들은 그런 나를 신기하다고 했고, 재수없다고도 했지만 달리 시간을 낼 수 없던 나에게서는 학교수업시간이 유일한 공부시간이어서 재수없게 집중도 하고, 질문도 하고, 열심히 했다.

중학교 때는 특별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내 짝궁이었던 아이인데, 가끔 도시락을 싸오지 않아 내 도시락을 나눠먹으며 친구가 되었다. 그 친구는 다른 아이들과 별로 어울리지도 않았다. 나처럼 ‘재수없음’으로 여겨지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아무튼 내 짝궁에게는 친구가 없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와 어울렸다.

“왜 도시락을 못 싸와? 엄마가 늦잠 주무셔?”

나도 내 도시락을 스스로 싸가지고 다니면서 당연히 도시락은 엄마가 싸주어야 한다는 어투로 능청을 떨었다. 나는 아이들이나 선생님 앞에서 언제나 힘들게 사는 척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런 내 모습이 짝궁에게도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이다.

“어? 왜 도시락을 계속 못 싸오는데?”

“어... 나, 사실은 고아원에 살아, 거기에는 아침에 도시락을 싸서 주방에 쌓아두면 알아서 들고 와야 하는데, 항상 숫자가 모자르거든, 동생들도 먹어야 하는데 내가 매일 가져올 수가 없어.”

고아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다. 그냥 앞으로 내 도시락 같이 나눠 먹자는 말만 하고, 도시락을 나눠 먹을 때는 타원형의 도시락통에 든 밥을 숟가락으로 가운데쯤을 주욱 그어 나누고 양쪽 끝에서 서로 먹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하면 집에서 2개 싸가지고 갔어도 될 것을 왜 그렇게 하나를 싸들고 가서 나눠먹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짝꿍을 통해 새로운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참아야하는 고아원 아이들의 생활, 고아원에서 좋은 집으로 입양되는 것도 서로 바라지만 얼굴이 이쁜 아이들부터 되는 것 같다는 짝꿍의 말, 짝꿍은 자기가 그래서 입양이 안 되었던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입양뿐 아니라 얼굴 이쁜 애들이 고아원 선생님들한테도 더 이쁨을 받는 것 같으며 속상해하곤 했다. 옆반에 있는 같은 고아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이랑은 거의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이빠서 너무 잘난 척을 한다고도 했다. 한번은 짝꿍이 내 손을 가만히 쳐다보며 나의 운명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너처럼 이렇게 가늘고 작은 손은 고생을 안 하고 산데, 그런데 나처럼 이렇게 마디가 굵고, 큰 손은 고생 많이 하고 살 손이래”
“에이, 아니야, 니 손이 뭐가 그렇게 크다구 그래.”

크고, 굵긴하다. 나랑 동갑인데 왜 내 짝꿍의 손은 고생 많이 한 아주머니들 손처럼 되었는데. 짝꿍의 눈에 슬픔이 가득하다. 어느 날 스님이 절 앞에 아기 울음소리가 나서 보니 아무런 메모조차 없이 버려진 갓난아이가 있었고, 그 후 스님이 키우시다 지금의 고아원으로 오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은 불교냄새가 나는 이름이라고 했고, 사실 나이나 생일도 정확히 몰라서 스님이 지어주었다고 했다. 내 고통의 크기로 친구를 가늠하고 사귀만한 아이를 찾지 못하던 나는 내 짝꿍을 친구로 생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내 고통을 나눌 수는 없었다. 나는 병어리처럼 짝꿍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시락을 나눠주는 정도로 만족해야했다. 다른 아이들과는 여전히 말도 섞지 않았다. 주로 혼자 앉아있거나 짝꿍과만 이야기하는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에서 초등학교 때 나를 챙겨주던 그 오빠와 마주쳤다. 오빠는 늘 상 지어 보이던 수줍고, 멋진 미소로 나를 반겼다.

“몇 반이니? 오빠는 2학년 0반인데, 언제 연락해”
“...”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너무 좋아하는 오빠 앞에 서있기에는 나에게 그 동안 너무도 많은 드러운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오빠가 내 몸의 상태를 알게 된다면 내가 아빠란 놈한테 그런 더러운 짓을 당하고,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중절수술까지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나를 지금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까지 들었다. 작년에 겪었던 일, 다른 아이들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초경통의 경험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초등학교 때 오빠를 좋아할 때만 해도 이런 이상하고, 쪽팔리다는 느낌까지는 없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나는 오빠의 물음을 모른 척 하고 지나쳤다. 그렇게 나의 우정 섞인 풋사랑은 끝내야했다. 아빠란 사람이 나에게서 빼앗아간 것들 중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것들 중 하나란 생각이 든다. 어린 시절에 겪어야했을 일들, 추억이라 부르는 것들이 나에게서는 거의 없다. 그때 그 착한 오빠와 친하게 지냈으면 여중생의 풋풋함, 싱그러움, 그 오빠의 순수함, 진실함이 만나 “소나기”같은 사랑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내 인생에서 사라진 아름다운 것 추억 하나. 아빠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비단 몸에만 그치지 않는다. 영혼과 내 시간들에 입힌 상처는 몸에 입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청소년기에 자연스럽게 경험해야하는 것들 중 전혀 기억에 없는 것이 어디 풋사랑이나 첫사랑뿐이라. 수학 여행도 못 가고, 극기훈련도 못 가게 했다. 심지어 전교 회장 부회장 선거에도 추천이 되어 나가게 되었지만, 아빠란 사람이 “너 남자애들하고 어울려서 놀려고 그 짓 하는 거지?”라며 밤새 패고 나서 하지 못하게 했다. 그것만이 아니다. 중학교 때 영어말하기 대회에 학교 대표로 나갈 기회가 왔을 때도 남자애들하고 어울려서 그런데 왔다 갔다 한다고 안 된다고 했었다. 선생님께는 내가 몸이 약해서 못 내보낸다고 했었는데 영어선생님께서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자기가 직접 데리고 왔다 갔다 할테니 보내달라고 부탁했지만, 절대로 보내지 않았다. 그런 기회들, 그 사람 때문에 박탈당한 내 기회들과 시간들 그로 인해 쌓여갔을 나의 추억들은 그 사람으로 인해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더 더욱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지곤 한다. 나를 나로 살지 못하게 한 것이란 생각에.

아무튼 그렇게 나를 부끄러워하게 된 후 몇 번 오빠를 더 마주쳤고,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 여전히 공부 잘하고, 반장도 하고, 여학생들 사이에 인기 있는 오빠임을 알 수도 있었지만, 눈인사 한번 나누지 못했다. 지금도 가끔은 그 오빠가 보고 싶다. 착하고, 좋은 오빠였는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인사도 못하고 지나쳐야 했는지 그 오빠는 상상도 못하겠지.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학교를 참 좋아했다. 왕따에 스파에(스스로 따) 괴로울만 했지만 집보다 나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과 살아야하는 공간만 아니라면 나는 재래식 화장실이라도 좋았다. 아무튼 학교란 곳에서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그나마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은 숨쉬기 좋았다. 아이들과는 못 지내도, 선생님들은 많이 이뻐해주셨다. 학교에 지낼 때는 그 사람이 없어 너무 좋았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 중에 유일하게 방학을 제일 싫어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발표도 했다. 특히 내가 좋아하던 영어시간에는 영어교과서 읽기를 잘 해 칭찬도 많이 받았고, 영어선생님께서도 많이 읽도록 시키셨다. 그러면 신이 나서 큰소리로 영어

책을 읽곤 했다. 그때는 이런 저런 힘든 일들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유일한 곳이 학교였고, 특히 영어시간이었다.

첫 사랑이란 무엇일까? 지나간 좋은 오빠에 대한 미안함은 소녀의 마음에 그리 오래 남지 않는 모양이다. 남녀공학에 남녀합반이었던 우리 중학교는 다양한 아이들이 만나 재미있게 어울리는 모습도 있었다. 우리 반에 가장 키가 작고, 눈이 유난히 컸던 아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는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산다고 했다. 엄마,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들은 적이 없어서 물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 아이와도 친해졌던 것 같다. 고아원 아이나 할머니 손에 어렵게 자라는 아이, 그 정도는 되어야 고통을 겪은 나로서 사귀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아무튼 나는 그 눈이 큰 남자아이를 무척 귀여워했다. 우리 반 아이들은 자기들한테 전혀 관심도 안 보이던 내가 두 명의 아이들과는 친하게 지내는 것이 불만이었나 보다. 특히 남자아이에 대해서는 여자아이들이 더 말이 많았다. 눈이 큰 아이는 그런 여자아이들의 말에 전혀 신경쓰지 않고 나와 친하게 지냈다. 사랑이 이런 건가 싶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밤에 하늘을 보면 정말 달 속에 그 아이 얼굴이 담겨있기도 했고, 반짝이는 별들은 그 아이의 눈동자가 되기도 했다. 신기했다. 우리는 학교에서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뿐인 만남으로도 충분히 순수한 첫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 이야기도 거의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냥 서로 좋았다. 그런데 어릴 적 감정은 그런 건가? 나의 중학교 2학년 때 기억에는 눈이 큰 아이는 사라졌다. 어디 갔을까?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는 강력한 날라리가 같은 반이 되었다. 2학년이 되어 처음 맞이하는 영어수업시간, 잔뜩 기대가 되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이제 막 올라온 우리 학교 최고의 영어발음을 구사하시는 선생님이 우리반을 담당하시기 때문이다. 드디어 수업시간 종이 올리고, 문이 열렸다. 작은 키에 통통한 몸매, 땡그란 눈을 가진 젊고, 예쁜 여자 선생님이셨다.

“여기 김OO 라는 학생있니?”

나는 조용히 손을 들었고, 다른 아이들은 나를 쳐다봤다.

“그래, 니가 OO구나, 어디 영어책 좀 읽어볼래?”

“네!”

방학동안 영어책을 읽고, 또 읽어서 거의 외우다시피 했었다. 아마도 1학년 때 영어 선생님께서 내 칭찬을 해주셨던 모양이다. 기분이 너무 좋고, 자신감도 불끈 솟아났다. 그런데 우리 반 강력한 날라리는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다. 내가 앉은 분단 맨 끝에 앉아있던 강력한 날라리는 영어교과서를 읽고 있던 나를 향해 휴지를 뭉쳐서 던졌다. 나는 그냥 모른 척 하고 그냥 읽고 있었다.

“잠깐만, 너 일어나봐, 애가 영어책 읽는데 왜 귀 막고, 휴지 던지고 그래? 너가 그렇게 싫어하면 애도 너 싫어해. 어디서 수업시간에 휴지를 던져.”

교실이 썰렁 해졌다. 나는 가만히 서있었고, 선생님은 그 아이를 불러내어 야단치고 별까지

주셨다. 그 일로 강력한 날라리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고, 학기 초부터 나는 반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찍혔다. 내가 어떤 짓을 했던 것도 아닌데 나는 일명 “잘난 척 하는 애”가 되어버렸다. 아이들의 일방적인 오해는 나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고, 뽕뽕 입 다물어 버리게 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대신 혼자 책을 보며 쉬는 시간을 보냈고, 점심시간도 거의 말없이 밥만 먹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내 속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까지 오는 길에도 그 사람은 내 뒤를 딱 붙어서 쫓아다니며 감시했고, 학교가 끝나면 교문 앞에 까지 와서 기다렸다 나를 가지고 다녔다. 그래 데리고 다닌 게 아니다. 그 사람은 “나”를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인형정도로 알았던 것 같다. 나에게서는 그나마 학교라는 공간이 숨쉬기는 편했다. 그러나 여전히 외로웠다. 외로웠다는 말은 그때의 내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좀 싱겁다. 그런 와중에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학교생활을 즐기고, 싱거운 첫사랑도 해보았다. ‘그래 아빠란 사람이 나를 아무리 감시해도 나에겐 나만의 탈출구가 있을거야’ 라는 생각이 내 속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

■ 수의 한마디

그 사람은 그때 나를 자기의 손아귀에 완전히 가두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 무시하기’라는 나만의 방법을 통해 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르는 짓거리와 상관없이 내가 그 나이에 최선을 다해 해야 하는 것들, 누려야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열심히 했다.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그때 나로서는 최선이었다. 학교생활을 하고, 도시락을 싸고, 밥을 해먹고, 아픈 엄마 대신 집안 살림해가며 밤이면 그 새끼한테 더러운 짓을 당하고, 반항하다 맞으면 맞고, 그럴 기운이 없을 때는 조용히 당하고.

조용히 반항하지 않고 당한다고 해서 그게 꺾인 것도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니다. 그놈한테 동조한 것은 더 더욱 아니다. 나는 그때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나에게 최선이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누구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했던 더러운 짓에 대한 완전한 무시가 아닐까 싶다. 나는 그때도 학교에서 웃을 일이 있을 때는 웃고,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좋아했고, 열심히 해야할 때는 열심히 하기도 했다. 위의 내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앞에 연재했던 글들과 달리 이번 글은 성폭력사건 자체보다는 내 생활, 내 생각들이 더 많다. 그건 이제 조금씩 내 삶에서 성폭력이 일어났던 사실 자체보다 내가 어떻게 그걸 헤쳐나가고 있는가에 집중하기 시작했던 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사실 그 때는 집을 나온다고 해도 뽕뽕한 해결책이 없었다. 성폭력상담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 성폭력이라는 개념 자체도 몰랐던 시절이니까.

혹시 당신에게도 몇 같은 일이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당신 인생에 끼어드는가?

‘뭐야 이거?’ 눈 한번 치켜떠주고, 내 갈길 가다 보면 무기력하게만 보였던 “그 속에서 무시하기”가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이다.

열린터 생각

열린터 다이어리

계절이 바뀌고 찬바람이 불면서
열린터에도 은근한 긴장감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저절로 움츠러드는 탓도 있지만,
한 해가 끝나가면서 생기는 조바심
때문이 아닐까요.

학교나 진로 혹은 자립에 대한
고민들도 성큼 다가오는 때가
9월인 까닭이겠지요.

식구들이 진지하게 미래를
걱정하고 계획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 역시 걱정과 기대감이 저절로
커집니다.

얼마 전 새 보금자리를
틀고 독립한 '동지' 에게도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지금 열린터 지붕 밑에는
7명의 식구들이
살고 있고요,

9월부터는
〈친족 성폭력피해 청소년을 위한
상담 매뉴얼〉 제작 사업을
국가청소년위원회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을-겨울 열린터 식구들과 채워나간
다이어리 재밌게 챙겨봐주시고요,
2007년 작은 송년회에도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9월

노래 선생님과 〈비폭력대화〉
페미니스트 운동회
국가청소년 위원회 프로젝트
2박 4일 추석 가족 여행

“비폭력
대화법”
찾기

초급 과정
비폭력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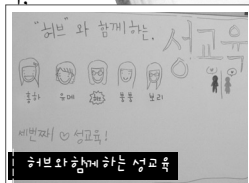
추석 가족 여행



페미니스트 운동회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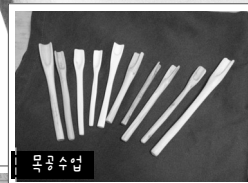
허브와 함께 하는 성교육
동지 독립
시설평가



허브와 함께 하는 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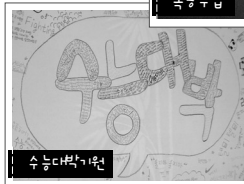
동지 독립



목공수업

11월

깎고 깎는 목공수업
맹매와 소화의 수능대박기원
홀로 어르신 방문



수능대박기원

〈여행수첩〉

보름달만큼 짝 찬, 즐거운 추석 가족여행

9월 18일 1차 준비팀 회의 “뭐하고 놀까?”

정해진 것은 목적지와 출발시간 뿐! 무엇을 하고 놀까?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한 밤에 사무실에 모여 앉아 보리, 유메, 봉봉, 등지, 거북 머리를 맞대다.

9월 20일 2차 준비팀 회의 “이렇게 해봐요!”

각자 맡은 부분들에 대해 훌륭하게 자료를 모아왔다. 알맹이가 채워진 기분. 이제 여행 윤곽이 보인다. 어서 어서 고고씹~

+1일 9월 23일 21:50 청량리 → 강릉 열차 탑승

여행의 시작부터 밤샘 야간열차 탑승. 무리한 시작이 아닐까 걱정하며 옆을 보니, 타자마자 사자가 정성껏 사준 김밥과 초밥을 먹고 있다. 먹고 자면 부울 텐데~ 히히

+2일 9월 24일 4:28 강릉 도착 → 경포대 → 허난설헌 생가 앞 → 속초 이동 → 숙소 → 회 한접시 → 보물찾기의 밤

새벽 열차에서 처절하게 자던 풍경 T.T 강릉에서 쉽지 않겠다는 직감이 왔다. 어설피(?) 강릉 시내를 돌아보고 숙소가 있는 속초로 이동. 멋진 통나무 숙소에서 한 숨 돌리니, 비로소 우리가 바닷가에 왔음이 생각났다. 저녁에 회 한 접시 먹고 돌아와, 재주꾼 보리가 준비한 행복한 보물찾기를 시작으로 오락의 밤 열림터에 숨은 타짜도 발견!

+3일 9월 25일 워터피아 미끄럼과 파도타기 → 조개구이 → 타로보기

수영복 잘 차려입고, 워터피아 구석구석 재밌는 것 찾아 다니며 물놀이를 하루를 보냈다. 그 어지러운 미끄럼 다시는 타지 말아야지! 밤에는 진지한 타로의 시간과 타짜의 활약이 계속 되었다.

+4일 9월 26일 따로 또 같이 속초 여행(목호항팀/청초항팀/휴식팀) → 영화감상 / 노래방 → 서울로!

봉봉과 등지가 준비한 코스 중에 절반도 가지 못해 너무 아쉽다. 다들 같은 마음인지 서로 가고 싶은 곳을 외치기 시작한다. 묘안을 내어, 따로 또 같이 팀을 짜서 여행을 하기로 함. 엄청난 해산물 구경, 아바이순대, 자전거도 타고,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만나니 기쁘다. 벌써 돌아갈 시간이라니! 더 알뜰살뜰 준비해서 다시 오고 싶다 생각하며 어느새 버스에서 즐기 시작함. 밤 11시 58분 서울 도착. 끝.

♣ 다음 페이지에서 추석여행에 함께한 열림터 식구 유메의 후기가 이어집니다

<여행후기>

추석여행을
다녀와서..

◎ 상담소 활동가를 꿈꾸는 열림터 가족 유메

살랑살랑 바람이 불면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에 열림터 가족들은 추석여행을 다녀왔다. 웬지 강원도이고 시골이라는 생각에 차가운 느낌이 많이 느껴졌다. 그러나 맑은 공기가 옷으면서 환하게 미소를 짓는 모습에서 따뜻한 느낌을 받았고, 자연의 벌레와 모기들도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추석여행 시작이 순조롭지는 않았지만 밤기차를 타고 나니 진짜로 여행이라는 것이 실감 났다. 추석 후에 바로 다들 시험기간이라 걱정은 되었지만, 다들 놀러간다는 의미를 가져서 그런지, 가서 열심히 즐기면서 놀았던 것 같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웬지 모르게 여행을 다니며 좀 여유 있게 다니며 휴식을 취하고 싶었는데, 너무 놀다보니 여유롭게 나에 대한 나의 감정을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기도 한다. 하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후회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각했던 것 보다 즐거운 여행을 즐기고, 잘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석여행이 끝나고 나면 시험을 볼 것이고 본인이 할 일을 잘 알아서 할 것이고 너무 해야 할 일부터 먼저 해야 하니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정말 원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번 여행만큼은 열림터 식구들이 잘 쉬고 잘 놀고 잘 먹고 한명도 아프지 않고 무사히 잘 다녀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다 같이 모여서 무엇 한 가지를 정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여행 중에 한곳에 다 같이 있으니까 프로그램도 서로 논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 서로의 의사표현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는 없었지만 내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즐기면서 시간을 보냈다. 솔직히 욕심이 많아서 다른 프로그램도 참여해보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무리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했다. 10명이라는 인원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라 3명 3명 4명 씩 택시도 타고 따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웬지 아이스크림을 떠올리게 된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것처럼 이번은 여행은 골라서 즐기는 여행이 되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모든 사람들이 원해서 결정한 일이라서 그런지 서로의 의견에 만족하고 자기가 좋다고 하면 나도 내가 결정한 의사표현이 정말로 만족스러웠다.

여행가기 전에 사전 준비를 많이 했다. 뒤늦게 시간과 장소의 변경에 따라서 일정이 변경 되고 해서 힘들기도 했지만 다들 즐겁다고 하였고, 여행을 다니면서 준비한 식구들이 오히려 힘이 불끈불끈 나는 것 같았다. 준비 회의에서 나는 식단 짜는 역할을 했는데, 내가 준비한 식단이 다들 만족스러워 하는 눈치가 아닌 것 같아 회의할 때 조정하였다. 진짜 막상 여행을 가서 보니 식단은 너무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끝으로, 좋은 날씨를 허락해준 하늘에게 고맙고, 열림터를 위해 따뜻한 작은 정성손길 하나하나 가져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3박 4일 동안 고생하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꿈을 가진 여자의 위험함에 대하여, 〈카핑 베토벤〉

◎ 본 상담소 상담원 당고

성문화읽기 _ 영화읽기 〈카핑 베토벤〉



그 여자를 통해 영화 읽기

이미 다수의 남성이 꽂 잡고 있는 영역에서 꿈도 있고 재능도 있지만 권력은 없는 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꿈과 능력을 펼쳤는가에 대한 성공담이나 경험담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여성의 관심사이며 주요한 테마이다. 영화 제목대로 〈카핑 베토벤(Copying Beethoven)〉은 클래식 거장이자 기행을 일삼는 고독한 천재였던 루트비히 반 베토벤에 대한 영화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 작곡가가 되고야 말겠다는 꿈과 야망을 가진 한 여성의 욕망과 고민을 19세기 비엔나를 무대로 재현한 영화이기도 하다. 이 영화를 두고 베토벤의 말년에 관한 영화네, 교향곡 9번에 관한 영화네, 음악에 대한 영화네, 예술과 신앙에 대한 영화네 말들이 많지만, 나는 내 멋대로 영화를 읽어보려 한다. 폴란드 출신의 여성 감독 아그네즈카 홀란드가 이 영화를 통해 말하려 한 것은 베토벤이 아니라, “여자가 작곡을 한다니, 개가 뒤로 걷는 것처럼 우스운 일이야” 같은 말이 들리던 19세기 비엔나에서 뜨거운 예술혼을 불태운 여성 음악가였다고 말이다.



그 여자가 가진 것들

영화의 화자이자 베토벤과 함께 또 하나의 주인공을 맡은 안나 홀츠는 작곡가가 그린 악보를 필사하여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나눠주는 카피스트(copyist)로 등장한다. 스물세 살의 안나는 작곡과 최고의 인재로 학교의 추천을 받아 비엔나에 왔다. 앞으로 베토벤이라는 야수와 음악 작업을 함께할 안나 홀츠란 여성을 무슨 말로 설명하면 좋을까.

영화 〈트로이(Troy)〉에서 세기의 미모를 자랑하는 헬레네 역을 맡았던 배우 다이앤 크루거가 연기하는 안나 홀츠는 절대음감과 뛰어난 작곡 실력을 가졌으며, 아름답고 이지적인

성문화읽기

용모의 소유자다. 그러나 음악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라는 소리를 들어봤자 여자가 음악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다. 그녀는 가난한 광부의 딸로 자신을 위해 희생만 하는 아버지에게 대한 부담 때문에 힘겨워한다. 잘생기고 자신만만한 건축설계사 애인을 두었지만, 사실 그 애인이란 녀석은 안나의 음악적 재능이나 베토벤의 음악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베토벤을 만나지 말라고 성화다. 성희롱에 가까운 베토벤의 무례함과 난폭함을 견디면서까지 베토벤에게 자신의 악보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안나의 열망과 야망을 알아채지도 못하는 바보인 게다. 베토벤은 안나가 “비엔나에 온 이유는 하느님께서 제가 작곡가가 되길 원해서예요”라고 말하자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자네를 여자로 만드신 중대한 실수를 하셨군”이라고 말하는 빨간 스승이다. 원장수녀인 안나의 고모는 그녀에게 “여자가 꿈을 가진다는 게 뭘지는 나도 알아. 그건 아름답지만 위험하지”라고 경고한다.

주변의 이해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안나는 베토벤 못지않다. 그러나 이 모든 공격에도 안나 홀츠는 여전히 솔직하고 용감하며 단호한 여자다. 안나는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떠는 베토벤에게 “선생님은 항상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모욕하고 그런 다음 절인 잉어나 보내죠!”라고 소리칠 정도로 용감하고, 베토벤이 ‘대푸가’의 악보를 보여주자 “추하고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할 만큼 솔직하다. 또 뛰어난 절대음감과 치밀함으로 베토벤이 B장조로 적은 악보를 B단조로 고치기까지 한다. 베토벤이 “왜 바꿨지?”라고 추궁하자 안나는 당당히 대답한다. “전 바꾼(change) 게 아니라, 고친(correct) 거예요.” 그렇게 안나는 베토벤의 음악 세계와 영혼을 꿰뚫어보는 영민함과 절대음감이라는 재능으로 그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해 카피스트가 된다.



그 여자가 이룬 것과 아직 이루지 못한 것


안나가 베토벤의 카피스트가 되었다고 해서 그녀의 여정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니다. 영화에서 늙고 병든 베토벤은 음악적 재능만큼이나 무례함도 천재적이다. 옷을 벗고 엉덩이를 들이밀질 않나 씻겨달라고 하질 않나 안나가 작곡한 악보는 비웃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사과한다. 이런 베토벤을 견뎌가면서 안나는 나름대로 해야 할 일들을 차분히 해간다. ‘교향곡 9번 합창’을 완성하는 데 카피스트로서 일조하고, 오케스트라 가운데에 앉아 베토벤의 지휘를 도와 초연을 성공적으로 이끈다. 거장 중의 거장 베토벤의 곁에서 그의 음악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평하며 영혼의 친구가 되고……. 카피스트로 베토벤의 곁에서 일하며 얻은 성취는 확실히 감동적이었다. 안나는 뿌듯했고 기뻛고 순간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러나 아직 안나가 자신의 꿈을 이룬 건 아니다. 모두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악성 베토벤이 그녀를 두고 “신께서 보낸 나의 뮤즈”라느니 “내 해방의 열쇠”라느니 하며 온갖 찬사를 바치지만, 그녀가 되고 싶었던 건 베토벤의 곡을 카피하는 카피스트가 아니라 베토벤처럼 뛰어난 작곡가였으니까. 그녀의 야심을 꿰뚫어본 베토벤 역시 “자네 내가 되고 싶어해”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안나는 베토벤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예 베토벤을 뛰어넘어 작곡가 안나 홀츠로 우뚝 서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화는, 아니 시대는 안나에게 그 이상을 허락하지 않았다. 안나는 끊임없이 자신의 작품을 작곡하여 베토벤에게 보여주지만 “넌 나를 카피하고 있어”라는 말 이상을 얻어내지는 못한다. 그리고 안나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던 베토벤 말년의 명곡 ‘현악 4중주 대푸가’를 이해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그녀는 신을 향해 “제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걸 쓰지 못하게 하시죠?”라며 분노하지만 정작 신은 아무런 대답이 없다. 극장을 나오면서 영화가 안나에게 너무 가혹했으며 그녀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다는 생각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결말이었다는 생각, 베토벤과 안나라는 두 주인공 사이에서 영화가 살짝 표류했다는 생각이 복잡하게 교차했다.



그러나 그녀들의 꿈은 계속된다

아쉽게도 우리의 주인공 안나 홀츠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이다. 이 영화는 베토벤이 9번 교향곡을 초연할 당시, 박수소리를 듣지 못하자 무대에 있던 한 여성이 그를 청중에게 돌려 응답하도록 했다는 실제 일화를 재구성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안나 홀츠가 실존 인물이 아니더라도 역사상 수없이 많은 안나 홀츠들이 있었을 거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원장수녀의 말대로 꿈을 꾸는 일은 확실히 위험하다. 여자가 꿈을 꾸는 일은 한층 더 위험하다. 그러나 꿈꾸는 일은 위험한 만큼 짜릿하며 위험을 무릅쓰는 만한 가치가 있다. 영화는 생각보다 시시하게 끝이 나지만, 안나의 꿈은 시시하지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고 믿는다. 대푸가를 이해한 그녀가 베토벤을 카피하는 것을 뛰어넘어 여성 작곡가로서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 장면을 눈앞에 그려본다. 19세기의 그녀가 이루지 못한 꿈을 21세기의 또 다른 그녀가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카핑 베토벤〉은 물론 베토벤에게 헌정해도 좋을 음악 영화지만, 나라면 당연히 안나 홀츠의 후예, 꿈을 가진 현재의 그녀들에게 헌정할 것이다. 

성문화읽기 _ 영화읽기 〈카핑 베토벤〉



연재기획_ 몸이야기 ① 의사소통하는 몸 ② 주체적으로 증속되는 몸 ③ 세상이 체현된 몸

2nd | 고통이 아니라 행복을 질문하기

"protect me from what I want", PLACEBO 내가 욕망하는 것으로부터 날 지켜줘.

◎ 여성주의 상담팀 키라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덜 사랑하는 사람이 권력을 갖는다고 이야기됩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다리고 더 많이 참게 되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일에도 터무니없는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행복과 고통을 정신없이 오갑니다.

정신없는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질문합니다.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긴 한걸까?”

대답은 심겁게도 “지금보다 덜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상대를 덜 원하게 되면 이 고통 역시 줄어들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상대와의 거리를 두면서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질문하게 되면 그 관계에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껏 상대방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면서 나를 압도시키던 고통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그 고통을 꼭 내 삶에서 견뎌야만 하지는 않다는 것을 거짓말처럼 알게 되는 거죠. 사랑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면 나는 덜 사랑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에도, “내가 원할수록, 나의 고통이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 있지요. 한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성폭력 피해는 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어두운 과거’라고 생각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꿈은 자기만을 사랑해주는 한 남자를 만나서 매일 매일을 연애하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볼 때마다 ‘안 됐지만 운도 없이 끔찍한 일을 당한 여자’라고 여기며 성폭력은 ‘나

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어느 날 낯선 남성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습니다. 이제 그녀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엄청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늘 내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남자 친구가 ‘혹시 너도 즐겼던 거 아니야?’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는 것을 느끼며 극도의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가해자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하는지, 억울함과 절망으로 가해자를 죽이고 싶은 살인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죽인다고 그녀의 삶이 변화될까요? 가해자를 죽이고 그녀의 삶은 ‘그 일이 없던 순수한 그 때’로 돌아가질까요?

그녀가 이 고통을 벗어나는 것은 이 고통과 그녀의 욕구가 연결되는 지점을 발견하며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지향이 바로 그녀를 괴롭힙니다. 그녀가 바라는 행복의 내용이 그녀 자신의 경험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과 화해하지 못 하는 그녀의 행복은 다음과 같은 가치를 포함합니다. ‘성폭력 피해는 여성을 불행하게 만드는 극복하기 어려운 경험이다’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 정숙함이 라는 가치는 중요하다’ ‘성폭력 피해 여성은 극도의 불행한 삶을 살 것이다.’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가치가 그녀에게 중요할수록 그녀의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를 전제로 한 ‘행복’을 더욱 원할수록, 그녀는 더욱 고통스러워집니다.

따라서 그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고통’ 뿐만 아니라 그녀의 ‘행복’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공분과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위

해 함께 노력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분노와 외로움을 함께 나누고 지지하는 것은 주변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몫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이 그녀의 고통을 구성하는 중요한 고리를 흔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사실 그 한 명의 가해자 때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복이 파괴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하게 믿어왔던 '행복'의 내용이 더 이상 자신의 행복일 수 없을 때 그녀의 '행복'에 대한 열망이 그녀를 더욱 괴롭히게 됩니다.


'내가 믿어왔던 행복은 어떤 행복이었나?'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포함하고 있던 나의 행복은 무엇이었나?' '왜 나는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만 정숙함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의문이 없었던가?' '내가 믿어왔던 행복이 더 이상 행복이 아닌데, 다른 여성들은 어떤 삶을 행복으로 계획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 자기 삶과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자기 삶에 대한 질문은 지금 고통을 느끼는 '나 자신'의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그 고통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음을 알게 되는 과정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것은 단지 '생각이 바뀌는' 과정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순결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있나요?'라는 말을 듣는다고 해서 순결 이데올로기가 나쁜 것이라고 '알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순결 이데올로기로 고통받는다라는 것은, 그 이데올로기가 개인 여성의 '행복'을 구성하는 데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성적으로 순결한 여성'이어야 완성되는 '행복'을 그녀가 꿈꿔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행복에 대한 구상은 단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친밀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며 영향을 받기도 하고, 감동적인 영화나 소설을 보며 자신의 행복을 구상하죠.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순간들이 그녀의 행복을 만듭니다. 몸,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개인의 '행복'은 그녀의 삶을 오래 지탱해왔기에 '편견을 버리세요'라는 말 한마디로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남자가 인생의 전부인가요? 툭툭 털고 일어나세요!'라는 격려 역시 남자와의 결혼과 이후 양가 집안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바람직한 핵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인생의 계획이었던 여성에게 어떤 감흥을 주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원했던 바로 그 행복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한다면 '나의 행복에서 남성과의 어떤 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가부장적 편견은 외부에서 강제로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부장적 편견은 나의 행복과 즐거움 속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그 편견을 고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부장적 편견'만이 여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이 되고자 하는 행복의 지

향 역시 어떤 여성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남성과 다른 방법의 의사소통에 있어 협상과 설득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지만 성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수동적이 되는 자신을 보며 성관계에서의 굴욕감을 느낀다면 이 여성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이런 방식의 성관계에서 굴욕감을 느끼며 괴로움을 호소하는 여성의 고통은 종종 '성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의미화하기도 합니다. 수치심과 무기력감이 뒤섞인 그 감정에 도무지 어떤 이름을 붙여야할 지 모르는 상태에서 성폭력이라는 이름은 그나마 가까운 언어로 이해되죠.

물론 자신과 충분히 의사소통하지 않은 상대 남성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남성에게 '여성이 무응답한 것을 왜 yes라고 해석하는가?'라고 질문하고 교육하는 것은 남성중심적 성문화에 익숙한 개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상대 남성에게 이런 질문만으로 이 여성의 고통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왜 나는 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늘 굴욕적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앞으로 누구를 만나도 내 행동 패턴은 똑같은까?와 같은 걱정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길래 그녀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을까요? 여전히 그 고통이 지속되고 있을까요? 그녀가 생각하는 '성적인 아름다움'과 '성적 쾌락'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몸으로 자신의 욕망을 찾고 실현하는 여성에 대한 느낌은 어떤지? 성적인 것에 대한 이미지와 느낌을 갖게되었던 내 유년 시절의 강렬한 경험/ 일상적 환경은 무엇이었는지?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질문은 그녀가 갖고 있는 '성적인 것에 대한 지향'을 질문함으로써 현재 그녀가 느끼는 답답함과 고통의 무게를 덜어줍니다(상대화합니다). 이런 순간에 이것이 '데이트 성폭력인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데이트 성폭력이라는 말이 불러오는 '이성에 연애의 성별 권력관계'에 대한 사회적 환기 효과에도 불구하고, 개인 여성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전망을 고민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내가 어떤 여성이 되고 싶은지?'라는 나의 욕구에 대한 질문이 나의 고통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행복의 전망을 달리해보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몸이야기③ 세상이 체현된 몸〉에서는 행복의 전망이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행복과 사랑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만큼, 그것은 몇 마디 말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결정과 실천은 인지적 결정보다는 몸의 느낌과 몸의 지향을 통해 일어나죠. 그것이 개인의 행복에 대한 전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식구들과 아름

만나고 싶었습니다

◎ interviewee _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지리산, 상담원 썸바귀

◎ interviewer _ 본 상담소 온라인사업팀 활동가 아름

——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선생님들을 찾아가다 ——

2007년 8월 23일부터 9월 15일까지 성폭력 상담 활동가를 위한 심화교육 '여성주의 상담, 나침반을 찾아라'가 진행되었다. 여기에 한 곳에서 함께 오신 세 분의 상담원 선생님들이 계셨다. 상담소 문을 잠시 닫아두고 충북에서 오신다고 했다. 여성주의를 지향하는 상담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것에 대한 세 분의 욕망, 활동에 화끈하고도 시원한 심표를 찍을 수 있는 그들의 용기에 우리들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나눔터에서 충북 청주로, 교육 이후 꼭 다시 뵙고 싶었던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선생님들을 찾아가게 되었다. 11월 7일, 1시 경에 도착하여 차려주신 밥상을 맛나게 비우고 '다우리'라는 카페에서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나눔터
edutainment



안녕하세요? 너무 바쁘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살짝 염려하며 찾아왔어요.

지리산, 썸바귀 하하. 안녕하세요? 바쁜 티를 너무 냈나요? 그렇지 않아도 셋이 간신히 시간을 맞춰 뵈는데 그 새 일이 생겨서 '뚝' 선생님은 지금 서울에 계시네요. 오늘은 우리 둘이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썸바귀 전화로 상담이 들어오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내담자들이 청주 사무실까지 오실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청주 밖의 군, 먼, 리 단위로 많이 가지요. 두 시간 이야기하러 네 시간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지리산 출장이 많은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사무실에 나오기도 하니까요. 멀리 가면 밤에 오니까 서로 못 보는 날도 많아요.

썸바귀 그런 때는 모니터에 편지 써 놓고 가기도 하지요.



사무실을 충북여성장애인연대(이하 연대)와 함께 쓰시는 군요!

지리산 예. 지원을 하다 보면 같이 가게 돼요. 상담소만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게 여기서는 성폭력 사건 지원 이후에 필요한 과정들, 여성장애인 자립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그러니까요. 같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같이 일하는게 좋아요. 이 곳, '다우리'도 정신지체장애 여성들이 용돈이라도 벌어보고자 운영하려고 연대에서 카페로 만든 곳이에요. 차도 있고, 다기들도 있고, 작년에는 수입도 꽤 되었어요.

썸바귀 일지를 보면 오늘은 손님 없다. 기분이 시발이다. 날씨가 개 같다. 좇같은 날이다. 이렇게 욕이 부지 기수지요. 하하하.



손님들은 어떤 분들이 오세요?

지리산 낯선 외부인들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 여기서 소모임을 하시면서 차 마시고, 찻값 내시고 그랬어요.



심화교육 때는 어떠셨어요? 상담소 문까지 잠시 닫아 두고 오셨다고...^^

쌤바귀 우편으로 온 포스터를 보고 “뚝, 가볼래?” 하고 있는데, 지리산이 “우리 다 가면 더 좋겠다”고 해서 의기투합하게 되었어요. 연대 사무국에 이야기하고 셋이 다 같이 문 닫고 올라갔지요.



업무에는 부담이 되셨을 것 같아요.

지리산 급한 업무가 있을 때는 연대에서 지원해 주었어요. 다행히 교육 기간에는 상담이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큰 지장이 없었어요.

쌤바귀 사실 우린 문 닫고 딱 나가기만 하면 좋았어요.



▲지리산이 차려주신 밥상



멀리 통근하시느라 고생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지리산 다섯 시간 반 걸려 도착한 적도 있어요.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서 1박 하는 날에 상담소 차를 타고 가는데 네비게이션이 종로에, 청계천에, 명동성당에 서울 중심가를 이리 저리 관통해서 안내하더라고요.

쌤바귀 덕분에 청계천, 종로 등 서울구경 잘 했지요. 하하하.



쉼터 연계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지리산 아직 마땅한 연계 쉼터가 없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만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쉼터 연계가 많이 어려워요. 일반 쉼터는 장애인 편의 시설이 안 되어 있거나,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입소를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올해에도 장애인 시설에서 성폭력 피해가 있으셨던 생존자 네 분을 다른 장애인 시설 네 곳에 나누어서 보내드렸는데 가해자 쪽에서 쉽게 찾아오기도 하고 해서 어려웠어요. 쉼터가 있었으면 이 과정이 달랐을 텐데...

쌤바귀 현재 성폭력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서울에 두 곳, 광주, 부산에 한 곳 해서 총 전국에 네 곳 밖에 없어요.

지리산 올해 3, 4월에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성폭력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의 수요조사가 있었어요. 수요가 있으면 1억 9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시, 군에 공문만 보내고 방치하고, 청주시는 우리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수요가 없다고 보고를 해 버렸어요. 지원이 됐으면, 도비와 시비까지 합쳐서 3억 8천만 원 정도 지원 되는 것이라 해볼 만 했는데 그 기회를 놓쳤지요.



도청과 시청에서 어쩌면 일을 그렇게... 너무 나빴네요.

지리산 그래서 도의원한테 의정질의 요구하고, MBC에 제보하는 등의 항의를 했어요. 내년에는 시청에서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쌤바귀 쉼터를 충청북도나 청주시에서 직영해 주어도 좋을 텐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지리산 예산이 지원된다고 해도 여성 장애인 쉼터는 편의시설 만드는 데만 해도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요. 내년에는 일단 터를 마련하는 시작이라도 해야겠지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_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신생님들을 찾아가다



사건을 지원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지리산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 있고 오래 전 기억과 최근 기억이 뒤섞여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봐도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습관적인 거짓말을 보태기도 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경찰이나 판결 이전부터 우리와 만나는 단계에서부터. 저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썸바귀 저도 비슷해요.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거짓말이 진술녹화 중에 드러나기도 해요. 녹화되고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이러면 제가 옆에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지리산 진술녹화 전에 우리와 이야기를 해 보고 들어가도 많이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는 답답하고, 내담자 분들은 이 진술녹화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고... 하루 종일 하던 진술이 무산되기도 하고, 경찰들과 시간 맞춰서 다시 가서 진술하기도 하고 그러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라도 되면 고마운데... 그 다음부터는 “전문의 소견 갖고 오라”고 하니까 우리 상담원들은 뭔가 싫을 때도 있고... 그런 고충이 있지요.



지원하면서 보니까 장애인 대상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되어 있는데도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그러더라고요.

썸바귀 많이 그렇죠. 진짜 너무 심하다 싶은 사건들도 합의하면 바로 집행유예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힘 많이 빠져요.

지리산 그리고 그 ‘합의’ 가... 여성장애인들은 가족들이 합의금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들이 상담소에서 상담 받으면서 가해자 겁주다가 합의가 시작되면 상담소에는 연락을 딱 끊기도 해요. 그러면 가족들은 수천만 원 챙기고 사건은 없어지고. 합의가 잘 안 되면 그제야 다시 상담소로 오시기도 하고.

(그 사이에 예전에 내담자였고, 요새는 거의 9시 반 출근, 5시 반 퇴근을 하신다는 한 여성분이 들어오셔서 지리산, 썸바귀와 새로 한 머리스타일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하고 가셨다.)



내담자분들과 ‘같이 산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리산 거의 그렇지요. 퇴근 후에 전화를 많이 하기도 하고. 하루에 28통까지 하는 내담자도 있었어요. 하루에 8시간을 같이 있으니까 식구들하고 있는 것보다 더 오래 있어요. 피붙이 같지요.

썸바귀 우리는 내담자와 마주앉아서 상담하고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보다는 수급권 만들어주러 쫓아다니고, 영구임대아파트 신청하러 다니고 그렇지요. 만날 서로 욕하면서 싸우기도 하는걸요. 하하하.



그러면 지원하시는 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썸바귀 거의 대부분 1년 이상 지원하고, 3년 넘는 경우도 있지요.

지리산 법적 절차를 밟는 지원 이후에도 자립생활 지원을 하니까요. 여성 장애인들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폭력 상담이 끝나도 연대 회원이 돼서 활동을 하거나 계속 필요한 지원을 우리가 해요. 지원이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사는 거죠.

썸바귀 중요한 건,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도 우리와 같이 있으면 가족들이 간장해서 함부로 못 해요. 그런데 우리와 연락이 끊기면 어느새 이상한 시설로 가있어요.



▲썸바귀 책상



장애인 시설 중에 이상한 데가 정말 있나봐요?

지리산 트여있는 공간에서도 장애인들을 무시하는데 막힌 곳에서는 어떻겠어요. 시설 밖에서부터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힘든 것 같아요. 시설에서 성폭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10년 간 노동착취하면서 교육은 이름 쓰는 것만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터도 장만을 하려고 해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있지만, 거기서도 일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올해에 그 분들과 1,000만원 프로젝트를 받아서 두부도 만들어보고, 여러 곳을 견학도 하면서 실험을 해 봤어요. 내년에는 장소를 알아 봐서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려고 해요. 일자리가 있으면 자립하기 편하잖아요. 내년에 그렇게 일터와 쉼터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꼭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지리산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신지체 여성장애인들과 함께 성캠프를 가요. 성인들과도 가다가 올해는 고등학생들과 갔고, 내년엔 중학생도 함께 가려고요.



성교육 캠프인가 봐요?

지리산 예. 1박 2일로 갔는데, 작년에는 캠프 마지막 즈음에 고등학생 아이들이 서로 친해지니까 자신들의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박 3일로 가는 것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아직은 1박 2일로 계획하고 있어요.



모집은 어떻게 하세요?

지리산 모집은 쉬워요. 각 학교의 특수교육반 선생님께 연락하면 금방 인원이 차더라고요. 분기별로 가 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는데 그 정도로는 못 하지요.



그렇군요. 2008년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활동! 정말 기대됩니다!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여장연 7개 지부들 중에서 이곳의 활동이 이직률이 제일 낮다고 했고, 연대와 상담소가 함께 쓰는 건물은 원래 교회였다가 기수련 센터였다가 지금의 사무실이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건물 외관은 교회인데, 벽과 천장 곳곳에 ‘기 딱지’가 있고, 입구에는 기가 들어온다는 ‘천부경’이 채 철거되지 못한 채 자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또 지난 4월 20일에 장애인 교육권 투쟁을 하다가 벌금으로 1,600만원이 나왔다는 이야기, 충청북도 교육청에 시위하러 가면 공무원인 지리산의 남편이 맞아서 “안녕하세요?” “물 좀 드릴까요?”라는 어색한 인사로 시작한다는 이야기, 이 밖에 지면에 채 담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선물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이드북>을 받았다. 책 안에는 썸바귀가 그린 삽화들이 가득했다. 시간이 있을 때 이런 예쁜 그림들을 많이 그린다는 썸바귀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책은 제일 잘 만드는데 것 같다고, 꼭 전해달라며 웃었다.

지리산, 썸바귀와 함께 저녁식사까지 하고 가고 싶은 마음을 꼭 누르고, 아기가자기한 인형들이 잔뜩 둘러싸고 있던 썸바귀의 책상, 앞에 칠판으로 쓰는 큰 거울이 있던 지리산의 책상을 뒤로 하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다.

이런 프로그램

“나무결이 우연히 그리는 그림을 보세요”



◎ 발도르프 목공 진행자 세아, 열림터 활동가 거북

11월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한손에 나뭇가지 한손에 칼을 들고 열림터 가족들과 활동가들 몇몇이 모임터에 모입니다. “나나나나나♪” 허밍으로 부르는 돌림노래를 부르며 작업을 시작합니다. 오늘 무엇을 만드는 작업일까? 아직은 짐작할 수 없지만, 선생님과 대화하며 요리 조리 깎아내고 사포질도 열심히 하다보면 무심한 마른 나뭇가지 하나는 세 시간이 지나면, 손가락이 되기도 하고 멋진 사진 틀 때로는 바람개비로 변신합니다. 공들여 깎는 ‘작품’을 손에 쥔 우리는 그저 흐뭇할 뿐이지요. 지난 11월부터 우리 상담소 식구들과 함께 목공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 세아 선생님을 만나 목공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세아 쌤은 늘 산으로 직접 나무를 하러 가신대네요^^

_ 거북

na
눔터
edutainment

거북 우리가 하는 목공은 무엇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발도르프 교육이라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잘 알지 않기도 합니다. 소개해 주세요.

세아 지금 우리가 하는 목공 프로그램은요, 발도르프 학교에서 5-6학년 경부터 합니다. 저학년 때는 간단하게 톱질이나 사포질 같은 것 하고, 유치원에서는 밀랍이라는 것을 가지고 동글동글한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다 5-6학년 쯤 되면 우리처럼 나뭇가지 하나로 온전한 형태를 갖추는 작업을 해요. 우리나라는, 저도 예전에 했던 거 보면, 국기함 만들기 하잖아요. 다 잘라진 거 우리는 풀로 붙이기만하고, 그것도 다 똑같은 거 문방구에서 사와가지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목공 수업에서 우리가 만든 걸 보면 똑같은 것 하나도 없잖아요. 개개인의 특성이 교육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목공 수업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북 3시간 넘게 깎다 보면 참 힘도 들고, 칼질이 무섭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세아 사실 우리는 갑자기 목공을 하게 되면서 손이 많이 서툴잖아요. 요즘은 손가락이 단추 누르는 정도의 기능만 해도 충분한 시대가 되었지만, 그건 현대적 기능에 맞춰진 것 같아요. 저는 인간이 뇌가 좋아서가 아니라, 손으로 인해 발달했다고 생각해요. 동물과 비교해보면 인간의 손이 정말 섬세하고 정밀하다고 하거든요. 인간만의 특징이 머리가 아니고 손이라고 생각해요. 이 손을 계속 사용하고 개발해야 하고, 적어도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겠지요. 하지만 항상 그러기는 어려우니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세아 제가 작업 전에 무엇 만드는지 잘 안 알려 주잖아요. 안 궁금하세요? (몸소 질문을 ^^)

세아 제가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물어 와요.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뭔가 궁금하고 호기심이 쾅트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가끔은 갈 곳을 모르고 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확실히 내가 하고 있는 걸까 라는 불확실한 상황을 경험하고 극복해 가는 것을 이 작은 프로그램에서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칼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것을 다루면서 남과 나를 다치지 않게 하는 작업하고, 불안한 상황을 누군가와 함께, 다른 사람들도 잘 모르지만 함께 가고 있다는 걸 믿고 가는 연습인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어떤 상황이 부딪혀도 어둠 속에 있는 기분이 아닌 뭔가 믿고서 가는 거지요.



거북 너무 공감되는 말입니다. 특히나 우리 열림터 식구들이 여기에 올 때 대부분 그런 상황에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느 것 하나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게 되요. 불안도 걱정도 많지만 잘 살아갑니다. 목공의 과정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수업시간에 나무를 깎다보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겠구나 짐작이 생길 때가 오잖아요. 이 때를 알게 될 때까지 잘 살아야 할 텐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권하고 싶은 분들이 있나요?

세아 저 같은 사람^^ 어떤 친구들은 깎는 것을 싫어하기도 해요.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공격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거든요. 부수고 상처를 주고 하니까 그래야지 시원한 것이예요.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해요. 목공에서 칼로 나무를 깎는 것이 이런 성향을 예술적으로 승화하는 것 같아요^^ 치유적인 효과가 많이 있는 것지요. 사실, 깎는 것은 에너지를 분출하는 것이잖아요. 분출을 하고 싶고 풀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구요.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는 어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 나무와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 연장(툽, 칼, 도끼) 다루기를 좋아하거나 다루고 싶은 여성(?) 에게도 권하고 싶어요. 나무를 하러 산에 가면, 안보이던 것들이 많이 보여요. 나무 생김과 느낌들이요, 우리가 나무를 깎다 보면 나무 속살을 만나잖아요. 처음에 제가 산뱃나무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 고운 연분홍색이라고 해야 하나 사포질 했을 때 얘기 피부 같고요. 또 나무결이 만든 그림들을 보게 되요.



슈타이너교육예술협회
<http://www.waldorf.or.kr/>

인지학연구센터
<http://www.steinercenter.org/>

민들레사랑방
<http://www.flyingmindle.or.kr/>

이런 프로그램 - 슈타이너 교육

거북 샘에게 설명을 들을수록 정말로 색다르고 너무 즐거워요. 참 새롭고 신기해요. 쓰던 말이 아닌 것처럼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표현들,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요. 배우거나 접할 수 있는 통로를 알려주세요.

세아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적응하기가 힘들겠어요.(웃음) 인간관계도 한 층이고. 저는 옛날에는 학교를 참 싫어하고, 선생님도 싫어하고, 교육마저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교육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들레 사랑방에서 하는 프로그램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10대 친구들이 많습시다. 목공 이외에도 영어, 글쓰기, 미술, 도자기 등의 수업도 있어요. 발도르프 교육은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주로 열리고요, 학교 교육은 슈타이너교육예술협회라는 곳에서 주로 하고, 영유아 대상은 많은데요 인지학연구센터라는 곳에서도 하고 있고요, 치유 교육에서 특수 교육과정도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시간에 목공을 다 하지는 않고, 선생님이 따라 예술 교육을 하게 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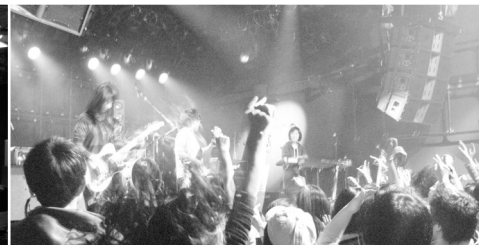
목공시간 참여자들의 짧은 20자 후기

시작부터 나무를 깎는 소리 참 재미있어요
리얼터 - 키라

나무를 깎는 게, 타는 소리, 집중, 새로움, 나무를 깎는 것 - 지리산

전에는 영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유메

목공이 참 재미있어요. 이번에는 그림을 그려볼까
거북



8.23~9.15 성폭력 상담 활동가를 위한 심화교육 '여성주의 상담, 나침반을 찾아라' 진행

성폭력 상담 활동가를 위한 심화교육 '여성주의 상담, 나침반을 찾아라'가 8월 23일 시작되어 지난 9월 15일 수료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여성주의 상담 활동가들이 자신의 상담을 재점검하고 이후 활동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수강한 상담원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4주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활동가들로서의 상담·지원 경험을 함께 나누고, 여성주의 상담의 열린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9.4 활동가 스터디 마무리

지난 7월 10일 시작되어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KSVRC 활동가 스터디가 지난 9월 4일, 치열한 기말고사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6회에 걸쳐 상담소의 그간의 반성폭력 운동의 전략을 돌아보고 피해자운동, 반폭력, 여성의 섹슈얼리티 등을 어떤 철학과 패러다임, 논리와 상상력으로 풀어나갈지, 누구와 어떻게 토론하고 구성해나갈지 고민하고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세한 스터디 내용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은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9.6~10.25 욕망찾기 초급과정 제2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6일 욕망찾기 초급과정 제2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17기 수료생들의 뜨거운 활동에 뒤이어 2기생들도 신나고 재미있는 열정적인 시간 만을 했습니다.

9.8 판례바꾸기 토론회

지난 9월8일에는 지난 1년간 진행한 성폭력을 조정하는 대법원판례바꾸기 운동을 마무리하는 <여성주의 관점의 성폭력 판례 비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제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여성주의 관점에서 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고민하는 많은 학자들, 법조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 여성운동을 하는 활동가들 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하여 대법원 성폭력 판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남성중심적인 법적 편견에 도전하는 우리의 활동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많은 토론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9.10~9.13 APWLD Study Workshop & NGO Consultation with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참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던 APWLD Study Workshop & NGO Consultation with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에 이윤상 부소장이 참가하였습니다.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반여성폭력운동단체들이 모여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에게 각국의 여성폭력 관련 상황과 이슈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에 함께 하여, 우리나라의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국제연대활동의 초석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9.14 다른몸되기 발표

을년부터 무예훈관, 지리산 중추, 자기방어컨설팅 등을 진행해 온 10대여성 다른몸되기 '당신의 시선을 넘어서'를 정리하는 발표회가 2007년 9월 14일 금요일 저녁 6시 상수역 근처 카페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10대 소녀들의 화려한 행차와 놀라운 변신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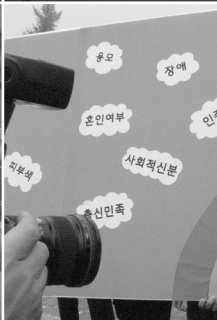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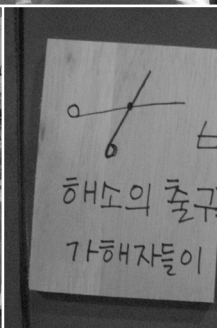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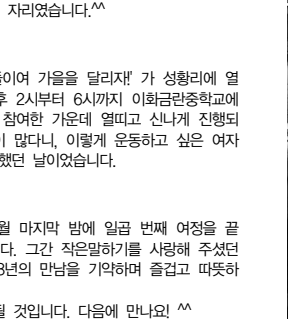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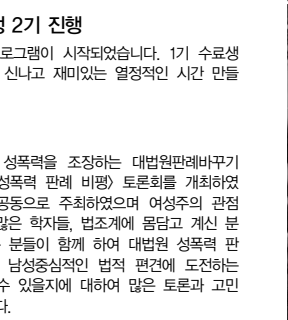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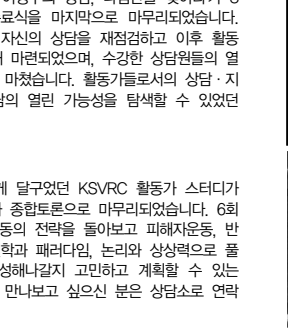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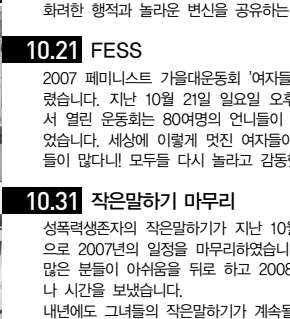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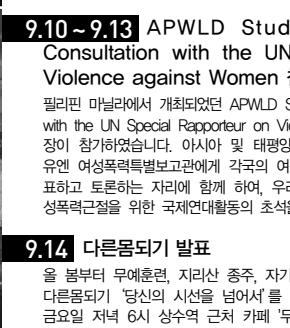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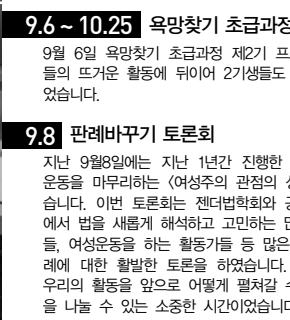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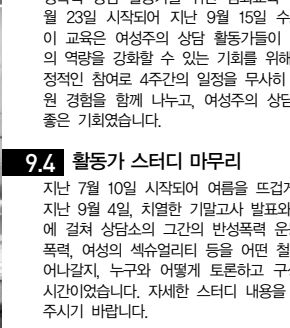
10.21 F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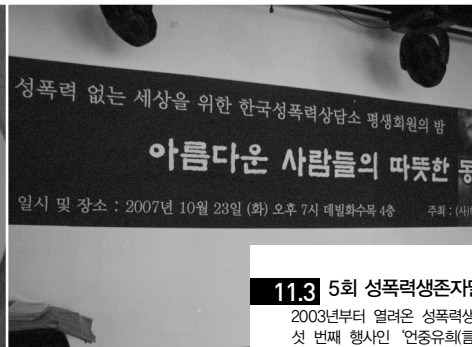
2007 페미니스트 가을대운동회 '여자들이여 가을을 달리자'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화관중학교에서 열린 운동회는 80여명의 언니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고 신나게 진행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멋진 여자들이 많구나, 이렇게 운동하고 싶은 여자들이 많구나! 모두를 다시 놀라고 감동했던 날이었습니다.

10.31 작은말하기 마무리

성폭력생존자의 작은말하기가 지난 10월 마지막 밤에 일곱 번째 여정을 끝으로 2007년의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간 작은말하기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뒤로 하고 2008년의 만남을 기억하며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년에도 그녀들의 작은말하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

똥다! 상담소





11.3 5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2003년부터 열려온 성폭력생존자말하기 대회가 올해로 5회째를 맞아, 그 다섯 번째 행사인 '연중유회(年中有會) - 이리요나라, 씹고 놀자'가 지난 11월 3일 흥대 근처 '상상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말하기대회는 말하기 참여자들의 경험에 음악, 영상과 같은 예술 장르와 결합하여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말하기 참여자들은 무대라는 형식을 통해 펼쳐낸 자기치유와 해방의 에너지를 우리 모두 흥복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장 밖에서는 <제의적 수다공간>이라는 컨셉의 전시가 펼쳐졌습니다. 입구에서 로비에 이르는 3개의 계단에 각각 경험 마주하기/분노와 복수/힐다지를 주제로, 로비에서는 <나의 이야기, 너에게 이야기, 함께 이야기>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렸습니다.

11.5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 대응 간담회

우리 사회에 반성폭력 법과 제도가 마련되면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전반에 관한 제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성폭력활동가로서 우리들이 체감하는 문제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지난 5월부터 우리 상담소와 민우회가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날 우리 상담소 이대경 소장(반성폭력운동 현장에서의 제도화 문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였고, 신상숙(서울대 연구교수), 박영란(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재원 변호사 등의 발제로 이어져서 열린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11.25 2007 세계여성성폭력추방주간 한국행사 "함께하는 평화" 공동주관

11월 25일 청계천 광장에서 2007 세계여성성폭력추방주간 기념 한국행사를 공동 주관하였습니다. 이 행사에서 우리 상담소에는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를 위한 40,000인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미 우리 상담소 홈페이지와 사이월드를 통해 33,800명이 넘는 분들께서 서명에 참여해 주셨고, 이 날에는 200명이 넘는 분들께서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공소시효 배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많은 시민들이 가까이 서명에 참여해 주시며 응원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받은 서명들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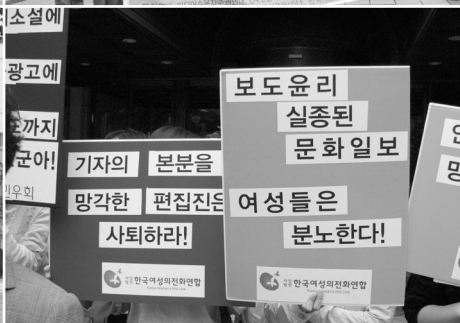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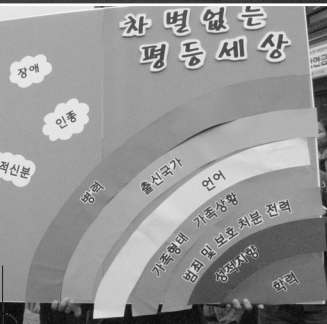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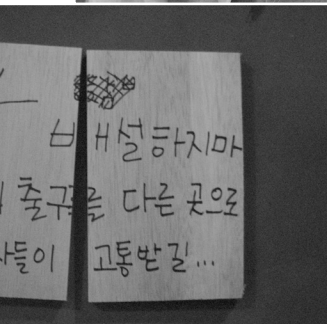
■ 성명·논평 활동

- 9.13 이명박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 9.13 언론, 정치가선 - 문화일보 신정아씨 누드사진 전제에 경악하다
- 9.20 반북적인 여성비하발언, 여성들은 분노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공개 사과하라
- 9.21 아일랜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투쟁 바로 알기 Q&A
- 9.27 중앙대 A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개질의서
- 10.8 문화일보의 신정아씨 보도태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관계자를 즉각 징계하라
- 10.10 피우진 총경 퇴역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 10.18 문화일보의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읽고
- 10.26 군대 내 성희롱, 성추행 피해 동성애자 병사 인권유린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10.26 국회는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범법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하라
- 10.27 문화일보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 11.2 성희롱 가해자 면에 선 중앙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
- 11.8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
- 11.14 문화일보의 해결되지 않은 유감을 표하며
- 11.15 노무현 정부: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인기 내 제정하라
- 11.21 삼성 발발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 국민서명 시작 기자회견
- 11.21 삼성으로부터 자유롭다면 청와대는 특검제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11.21 한국은행은 새화폐 인물선정을 통한 성차별을 즉각 중단하라
- 11.22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을 개정하라

성명·논평 활동에 대한 글 전문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http://www.sisters.or.kr>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토론회 활동

- 10.1 한국여성민우회 창립 20주년 기념 노동 심포지움 <직장내 성희롱 대응운동, 금지조항을 넘어서>에 토론자로 참여 (소장 이미경)
- 10.24 법무부 <성, 가족, 아동폭력에 대한 형사정책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 (소장 이미경)
- 10.31 여성가족부,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 (소장 이미경)
- 11.5 <반(反)성폭력운동의 제도화 대응 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여 (소장 이미경)
- 11.1~2 <한국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워크숍>에 발제자로 참여 (소장 이미경, 활동가 오매)
- 11.21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여성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디어 비평과 케이틀 방송>에 토론자로 참여 (부소장 이윤상)
- 12.5 중앙대, <성폭력 학제 재개정을 위한 심포지움>에 발제자로 참여 (소장 이미경)
- 12.7 경찰청, <성폭력 피해 대응 조사 전문가참여제 정착을 위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 (소장 이미경)
- 12.10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차별금지법운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에 사회자로 참여 (여성주의상담팀 키라)



사업 review

2007 성폭력상담활동가를 위한 심화교육

[여성주의 상담, 나침반을 찾아라]

◎ 본 상담소 상담원 감이

여성주의 상담, 다시금 길을 찾다.

글쓰기 올림증이 있는 나에게 나눔터의 글을 청탁한 그녀
나 병원에서 진료비 계산하던 중에 열떨결에 오케이 해버
린 나나 진땀나기는 마찬가지.

나눔터의 팬임을 자칭하는 내가 이곳에 내 이름을 올
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떨리지만,

내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어쭙쭙한 글이 끼워진다니
이 어찌 올림거리지 않겠는가. 허허.

올림거리리는 속을 냉수로 진정시키며 3개월 전,
[2007 성폭력 상담 활동가를 위한 심화교육]
을 되새겨 본다.

[여성주의 상담, 나침반을 찾아라]는 내
가 지난 9개월 여 간의 공백을 깨고 상담
소로 돌아오게 된 계기였다. 모름지기 '선표'

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때에 찍어주어야 그 가치
가 배가 되는 것인데,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선표를 남발
했었던가 보다. 결코 짧지 않은 '선표'의 기간 덕분에 그나
마 내 안에 있던 상담에 대한 어설픈 용기와 동료 상담원
선생님들에게서 전수받은 실속 있는 노하우조차 희미해져
버렸던 거다. 그래서 상담을 다시 시작하는 데에 대한 작
심을 선불리 하지 못했었다. 또 그래서 이번 심화교육을
꼭 들어야만 했다.

길게는 15년(혹은 20여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선생
님들부터 6개월 된 초보 선생님들까지 다양한 성폭력 상
담원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어느 분은 긴 시간동안
상담하느라 소진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
셨고, 어떤 분은 상담소의 대모?(왕언니?)인 한국성폭력상
담소의 교육에 꼭 참가하고 싶었다는 신청취지를 가슴 벅
차게 늘어놓기도 하셨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이번 교육을 위해 새벽부터 부랴부랴 준비해서 힘
들게 도착했다는 감동적인 인사말도 해주셨다. 각자의 색
깔만큼이나 이번 심화교육에 대한 저마다의 의미를 짧게
풀어내고, 서먹하고 긴장된 첫 만남의 어색함을 [모모의
춤 세라피]로 녹여버렸다. 그렇게 늦은 8월의 [나침반 찾
기]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8월 23일에 시작된 이번 교육은 9월 15일까지 4
주에 걸쳐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마다 계속 되었다. 다들
무척 바빠실 텐데도, 대방동까지 오시는 길이
힘난하실 텐데도 매번 꽤 높은 출석률을 보
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상담원으로서의
'나'와 내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만나보는
시간이 있었다. 우리 상담의 원칙과 쟁점을 다
시금 생각해보는 강의와 논쟁적인 주제였던
'꽃뱀' 신화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직면해보
기도 했다. 여성주의 상담사례연구와 집단상
담,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 체험 등 평소에 해
오던 것들과 낯선 것들의 조합이 꽤 마음에 들었던
커리큘럼이었다. (마지막 날에 제공된 멋진 식사가 압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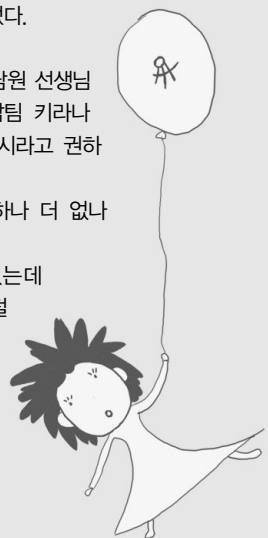
평소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강사 선생님들의 열
정적인 강의와 또 그에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강의에
참석하신 상담원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자극 받았던 시
간이었다. 사실 교육기간 중에 나에게 일어났던 힘겨운 경
험만 아니었다면 좀 더 충실히 교육에 임할 수 있었을 텐
데..라는 아쉬움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분
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

나처럼 상담을 좀 오래 쉬고 계시는 상담원 선생님
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일단 상담팀 키라나
이산에게 슬쩍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보시라고 권하
고 싶다.

"여기 길 잃은 어린양에게 줄 나침반 하나 더 없나
요?"

그녀들이 매몰차게 "그런 나침반 없는데
요.ㅡ" 라고 할라는 없으니, 아마도 친절
하게 이런 답문을 보내주지 않을까?

"정해진 길을 찾아주는 나침반을 드
릴 수는 없지만, 함께 바른 길을 찾
을 수는 있어요~ 상담소로 오세요
~" 



작은 말하기, 마니아mania¹⁾의 탄생

◎ 말하기대회 기획팀 가온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말이 있고난 다음에야,
그것이 성대를 울려 파장을 가지고 공기를 가로질러
우리의 귀에 닿게 되는 걸까?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며칠 전부터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저녁 6시. 해매는
마음은 절정에 달한다. '가고 싶다. 안가고 싶다. 안가도
된다. 그래도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은 뭘까?'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신발을 신으며 마음에 항복한다. 내가 만
약 가지 않는다면, 대략 6시 반부터 잠들기 전까지 내 모든 마
음을 <작은 말하기>가 열리고 있을 카페 무대륙에 보내놓고, 몸은 또 어느 거리를 방황하면서,
그야말로 '몸 둘 바'를 몰라 할지 뻔했기 때문이었다. 니가 이겼다. "You Win."

그러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름/별칭,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지 서로 소개하는 시간
에 <작은 말하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를 수십 번은, 수백 번
은 더 망설이다가 왔다는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무대륙 카페 앞에서 삼
십분 넘게 서성이다가 들어 왔다는 분까지,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저 문을 열고 이곳에 앉기
까지 크건 작건 어떤 결단이 있어야 했나보다. 나 역시 <작은 말하기>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내 안에 나의 말하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이야기의 열기는 타올랐다가 사그라지고
를 반복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내 성폭력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그 가능
성이 나의 <자기만의 말하기>를 불러일으켰다. <자기만의 말하기>를 하다가 그 안에서만 맴도
는 레퍼토리가 답답하고 지겨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 이야기가 목구멍까지 차 올라왔다. 이 사
이클을 깨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작은 말하기>라는 돌파구를 찾게 했다. <자기만의 말하기>와
<작은 말하기>는 서로를 그렇게 불러들였다.

5월의 <작은 말하기>에 처음 참여한 이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말하기가 있는 저녁마다
나는 서두르고 있었다. 나의 말하고 싶은 욕구, 저번에 만났던 그녀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
고 싶은 마음이 나를 이끌었다. 그 이끌림은 가히 저항불가였다. '오늘 작은 말하기에 오세요'
하는 담당자의 문자는 소심한 마음에 화룡점점을 찍는다. 어디서 그런 뜨거운 말하기를 들을
수 있는가, 어디서 그렇게 고통과 직면하는 용기 있는 여성들을 만나겠는가. '내 이야기를 이런



사업 review - 작은말하기

게 의심받지 않고, 외면 받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저에게는 기적이예요' 라고 이야기 하는 그녀의 손 떨림이 전해온다. 성폭력사건과 그를 둘러싼 투쟁과 고통과 치유를 이야기하는 자 리에 가면서 '오늘은 또 무엇을 배울까' 기대하고 설레고 즐거워하는 내가 낯설었다. 작은 말하 기를 진행하면서 "당신들이 정말 아름답다, 너무 즐겁다"고 완(전)소(중)의 미소를 짓는 진행자의 빛 나는 얼굴이 떠오른다.

“안 당해보셨나봐요”



그러나 <작은 말하기>에 다녀와서 잘 풀리지 않고, 골똘히 생각하게 되는 지점들도 생겨났다. <작은 말하기>는 참여자들이 '성폭력'이라는 공통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가 가능한 공간이다. 그 공통된 경험 속에서 이해와 신뢰와 지지가 촉발되고, 그러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성폭력'은 최소공통분모가 되어버리고, 피해와 고통과 투쟁과 치유가 다 다름이 드러나는 순간, 그리고 그 다름이 '나는 이런데 당신은 왜 그래?' 하며 말해지는 순간, 긴장이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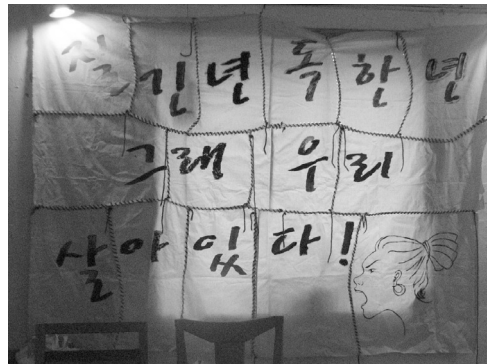
뒷풀이에서 참여자 A가 참여자 B에게 “안 당해보셨나봐요” 라고 했다. B는 성폭력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가해자와의 (몸과 마음의)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고, 그러니까 ‘가해자 니가 기대하는 대로 나는 위협받거나 위축되지 않아’ 하는 반응을 해 보면 어떨까 이야기했는데, A는 “안 당해보셨나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반응했다. 나는 그 말을 옆에서 듣고 당황하기도 하고 마음이 조금 상했던 것 같다.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인가? 그 ‘당하는 것’이 다 다르고 예를 들면, 친족 성폭력 생존자와 데이트 성폭력 생존자는 깊이 있게 서로 공감하고 지지할 수 없는 것일까?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생존자가 아닌 사람과는 공감 할 수 없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성폭력 상황에 대처하는 힘을 가진 생존자는 성폭력 피해자의 이미지, 즉 수동적이고 고통 받는 모습이 아닐 때 ‘저 사람은 성폭력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했다. 하여 나는 “안 당해보셨나봐요”라는 그녀의 말이 그 차이에서 오는 긴장과 신뢰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묻어있는 말일 수도 있겠다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야 다시 듣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 켠이 아리송하다.

“아직 화가 들 나신 거 아니에요?”

사건 순간에 화를 내지 못했고 지금도 어떻게 화를 내야 할지, 내가 화를 낸다고 가해자에게 어떤 영향이 갈지 같듯이 된다고 하는 참여자C의 이야기를 듣고, 참여자D가 아직 화가 들 난 것이 아닌지 묻는다. 순간 불편한 정적이 흐르고 다른 참여자들이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며 참여자C의 답답한 상황을 변호한다. 참여자C는 가해자와 물리적 거리도 멀고 시간도 많이 지났고

법으로 호소할 수 있는 증거나 다른 통로가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었고, 반면에 참여자D는 자신의 사건과 가해자에 대해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D는 입증된 증거와 가해자의 시인을 확보하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작업에 몰두 하고 있었다. 나는 D가 C에게 ‘아직 화가 들 난 것이 아니냐’ 라고 말했지만 그 이면에는 본인이 그렇게 화를 표출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 하다. 나는 폭발할 것 같이 분노한다. 그 분노를 쏟아내고 싶다’ 는 기운을 느꼈다. 마치 앞에 있는 책상을 뒤엎을 것 같기도 했다. 분노를 표출할 수 없었던 참여자C는 D의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 나는 두고두고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다.

위와 같이 차이와 긴장의 순간들 외에도 내가 <작은 말하기>에서 배운 것을 부족한 언어로나마 적어 보자면 이렇다. 참여자들은 ‘내가 그 순간에 나를 방어하기 위해 왜 싸움을 하지 않았는가, 또는 그 당시에는 무력했음이 생존전략이기도 했지만, 그 사건 이후에 나는 왜 내 스스로를 더 적극적으로 돌보지 않았는가/못했던가’ 를 뼈저리게 애도하였다. 즉 싸움을 해야 할 때, 갈등을 감수해야 할 때, 피해를 이야기해야 할 때 그것을 하지 못했음이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부장제가 피해자/생존자를 질책하는 말들, 그러니까 ‘니가 그 시간에 왜 거기 있었니?’ 하는 질책을 버렸지만, 사건을 이야기하고, 지원을 요청하며, 분노하고, 병원에 가고, 그렇게 자기를 돌보는 행동들을 왜 하지 않았는가/못했는가 하는 것이 슬픈 것이다. 말하기를 하면서 그렇게 슬퍼하며 ‘자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했으나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그녀들은 <작은 말하기>에 와서, 그녀들이 스스로에게 원했던 것을 發話(발화)하고, 치유의 여정을 걷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잘 돌보고 싶어 하는지 깨닫게 되고, 책을 찾아 읽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상담을 받거나, 일상의 새로운 시도를 하며 치유의 과정을 걷고 있는 자기 자신을 조금/많이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작은 말하기>에서부터 <언중유희>, <말하기 캠프 ‘몸’ 놀다>까지 말하기와 함께한 일 년 동안 배운 것이 너무 많아 이 글이 횡설수설임을 안다. 하지만 이 횡설수설도 뽕뽕하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세상 곳곳에서 작고 크고 분노하고 울고 부수고 사랑하고 힘내는 <여성들의 말하기>가 왁자글왁자글 일어남을 상상한다. 마치 <작은 말하기>가 2006년 봄 어느 카페에서 상상되어 현실화되었고 상상 이상의 것을 보여주었듯이.

말하기 캠프가 끝나고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은행잎들이 눈송이처럼 우박처럼 후두두두둑 쏟아졌다. 마치오늘 다 버리기로 했다는 듯이. ‘응, 나도 오늘 다 버릴게. 이 어쩔 줄 모르겠는 캠프의 뜨거움도 사랑도 고통도 긴장도 안녕. 푸릇한 새순으로 또 만나자. 안녕.’ ☺

1) 마니아 mania [명사]어떤 한 가지 일에 몹시 열중하는 사람. 또는 그런 일.

뜨거운 놀이, 뜨거운 말하기

〈언중유희〉

◎ 여성주의상담팀 이산

5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이하 말하기대회)의 제목은 〈언중유희〉, 부제는 춘향전의 한 구절을 패러디한 '이리 오너라, 씹고 놀자!' 이다. 성폭력 피해 말하기 안에 '놀이'가 있다는 말은 언뜻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피해의 아픔과 놀이의 즐거움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쉽게 상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웃으며 말한다 하더라도, 그 경험이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고 싶은 '피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 뒤에는 아프고 눌렸던 감정이 살아 움직이고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대회가 〈언중유희〉라는 제목과 '이리 오너라, 씹고 놀자!'라는 부제를 달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의 아이디어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하나는, 우리가 그 동안의 말하기대회를 통해 많이 울고 함께 아파했다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공감함과 동시에 자신을 애도하는 눈물을 흘리며 꼭꼭 눌러왔던 아픔이 해소되는 경험을 했고, 어떤 날에는 다 흘려보내지 못한 아픔이 남아서 대회 후 더 힘들기도 했다. 성폭력 피해를 말하고 듣는 것이 모두 그토록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아픈 일이라면, 그 힘을 모아 즐거움과 웃음을 공유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하나는, 놀이라는 것이 반드시 '재미'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편견,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슬픔이든, 분노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해보는 것도 놀이다. 노래하는 것도, 영상을 만드는 것도, 함께 울고 웃는 것도 즐겁고 시원할 만큼 실컷 쏟아낼 수 있다면 모두 놀이다. 이렇게 시작한 말하기대회는, 2시간 40분 동안 '씹고 노는' 우리의 열정적인 놀이로 가득 채워졌다.

〈언중유희〉에서는 한새, 보짱, 세상, 새벽빛, 총 4명의 말하기 참여자와 약 150명의 듣기참여자가 함께 했다. 말하기참여자들은 말하기대회 한 달 전부터 사이코드라마를 통해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었다. 말하기참여자들은 기획단과 함께 사이코드



〈제5회 성폭력생존자 말하기대회〉 포스터 illustrated by 김혜정



라마 집단에 참여하고, 여성 아티스트와 함께 자신의 말하기를 꾸려나갔다. 싱어송라이터 이주영, 흐른, 밴드 Zenith Trail, 〈쇼킹패밀리〉의 촬영감독 조세영이 말하기에 함께 참여하였다. 말하기참여자를 만나 말하기참여자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듣고 이를 음악이나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었다.

서로 만나기 전엔 말하기참여자로, 아티스트도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말하기참여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영상이나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려웠고, 어디까지 무엇을 이야기해야할지도 막막한 상황이었다. 뮤지션은 뮤지션대로 촉박한 시간 안에서 말하기참여자의 경험을 얼마나 잘 반영해서 곡을 개사하거나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긴장이 있었다. 극 영상도 아닌 말하기참여자의 인터뷰 영상을 무대에서의 말하기와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도 숙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 숙제들은 막상 준비과정에 들어서자 즐겁게 해결되기 시작했다. 영상작업자와 뮤지션들은 말하기참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멋진 노래와 영상을 탄생시켰고 말하기참여자를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의연하게 무대에 나오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듣기참여자들은 말하기참여자의 이야기에 눈물 흘릴 때도, 노래와 영상에 환호성을 보낼 때도, 말하기참여자의 권유로 서로를 안아줄 때도 언제나 뜨거웠다. Zenith Trail과 마지막 말하기참여자가 함께 노래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객석에서 일어나 뛰고, 소리 지르고, 무대 앞으로 나갔다.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는 설레임, 모인 사람 모두가 멋지게 살아남은 생존자라는 것을 온 몸으로 경험하는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아래의 문장들은 말하기대회를 준비하던 기획단이 함께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올린 후기들 중 일부이다. 지면 상 몇 줄만을 발췌하였으나, 수십 장의 글보다 그 날의 뜨거움을 더 간절하게 표현한 이 문장들로 마무리를 대신하고자 한다. ☞

내가 얼마나 나, 그리고 그들이 살아 있기를 바랐는데, 계속 살아가기를 바랐는데, 잘 살아가기를 바랐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으니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어. 우리, 서로 그토록 원하고 있었던 거야.

〈당고〉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라, 그 너머까지 쏟아질 것 같았던 울음들과 발 끝 너머 땅 속의 지구 중심까지 쿵쿵 울려댈 것 같았던 흥겨움, 핏 속의 분자와 세포 하나하나와 살갗들과 털 끝 모두가 감정들로, 열의로 가득찼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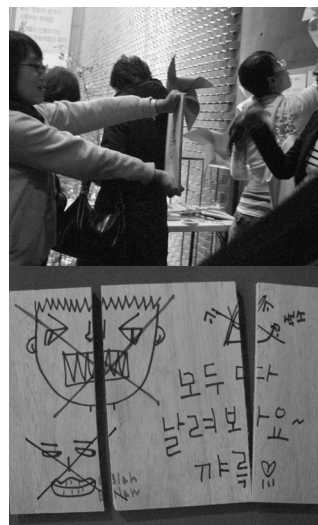
〈하나〉

제각각의 생각을 하고 있을 수백 개 심장들의 뜨거움이었고, 발바닥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이기도 했고 머리에 달려있는 핀을 빼 버리고 진창 놀아보고픈 유희였고.

〈이체〉

나는 춤추고 싶다. 나는 태권도와 택견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 새끼를 다시 만난다면 전치 5달 정도의 상해를 가하고 싶다. 나는 편하고 싶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나는 생존자들을 만나게 되서 감격스럽다. 그리고 피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온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가온〉



여자들이여, 가을을 달리자

◎ 페미니스트 대운동회 기획팀 아이서



10월의 따사로운 햇빛 아래,
우리는 가을을 달렸고 운동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10월 21일 일요일,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운동장에서 '2007 페미니스트 대운동회 <여자들이여, 가을을 달리자>'가 열렸고, 100여명의 여자들이 모여 신나는 한판을 벌였다. 어떤 이들은 언니들의 응원에 힘입어 평소보다 훨씬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응원하느라 목이 쉬기도 했고, 경기에 뛰어들 용기까지는 없어도 함께 함에 마냥 신났던 이들도 있었다. 모이기까지 사연도, 몸의 역사도, 키도, 힘도, 체력도 다 다르지만 함께 가을을 달려보고자 모인 멋진 여자들은 각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운동회를 즐겼고, 그 여흥은 늦은 밤 술자리 뒤풀이까지 계속 되었다.

이번 운동회는 여성주의자기방어훈련 <날자!>, 한국성폭력상담소 <다른몸되기>, 한국여성민우회 농구교실 <자신만만>, <쫄토 야간 축구회>- 이렇게 네 팀이 모여 준비한 것이다. 2007년 들어 페미니스트 운동모임들의 활기찬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서로가 반갑고 힘나는 우리는 같이 뭐라도 해보고자 모여들었다. 처음에는 서로 모임에 대해 소개하고, 앞으로 활동 방향 등에 대해 토론하는 워크숍을 구상하고 있었다.

“것도 좋지만, 다들 운동하는 거 신나서 모여든 언니들인데 맘껏 뛰는 판 만드는 게 어때?”

“좋아!” “나도 좋아!”

흐흐, 역시- 준비하던 기획단도 몸 움직이고 노는 걸 더 좋아했던 거다.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니뭐니해도 운동회는 줄다리기지! 신나서 계획도 짜고 여기저기 소문도 내고 다녔다. 현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다. 바로 장소! 운동장들은 대부분 이미 예약이 꽉 차있었고, 대학의 경우 대학 소속 단위가 아니면 대여를 안 해줬고, 주택가 중고등학교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 안 된다며 불가능 통보를 해왔다. ‘운동회’라는 이름에 큰 행사는 안 된다며 거절하는 곳도 있었다. 그렇게 한 달을 미뤄야 했다. 장소만 되면 다른 준비는 완벽한데! 남(男)들은 장소도 잘만 빌리고, 운동회도 잘만 하던데! 여전히 여자들이 운동과 관련된 자원을 갖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인가보다 싶어 살짝 씁쓸해지기도 했다. 결국 운동회라고 하지 않고, 여자

아마추어 축구회 정도로 적당히 농쳐서 이대부중 운동장을 빌릴 수 있었다. 좋아- 이제 가는 거야!

드디어! 밤잠 설쳐가며 기다려 온 운동회 날, 운동회를 함께 준비한 운동모임 네 팀에서 온 언니들은 물론이고 FC 헤이데이, 경희튼튼태권도, 송파여성축구단 등 다른 운동모임에서 온 언니들, 여기저기서 소문 듣고 각자 모여든 언니들이 와글와글 모여들었다. 운동장 여기저기 펼쳐둔 놀거리와 먹을거리, 아니 그저 공만 있어도 신나는 우리들이었다.

“여자들이여, 운동장으로 나오라!”는 외침과 함께 운동회가 시작되고, 소속에 상관없이 홍팀과 청팀으로 나뉘었다. <날자>에서 스트레칭으로 몸풀기를 진행한 후 농구경기가 시작되었다. 어찌나 멋지게들 승승 날아다니는지! 선수들과 응원하는 사람들 모두 한 마음이 되어 경기에 집중한다. 프로 경기처럼 스치 한 번에 쏙쏙 들어가진 않아도 상관없다. 들어갈 듯 말 듯 어찌나 스릴 있는지 모른다. 네 번의 경기가 끝나고 곧이어 축구가 시작되었다. FC헤이데이와 짝토야간축구회, 송파여성축구팀의 활약은 그야말로 대단했다. 날렵하게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공을 차는 멋진 여자들의 몸놀림에 심장이 쿵쿵쿵쿵 뛰었다. 게다가 센스 넘치는 골 세레모니까지! 자세하게 경기 내용도 설명하고 싶고, 그 때의 신나는 마음도 잘 전하고 싶은데 언어의 한계가 너무나 아쉽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운동회에 함께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축구에 이어 이어달리기, 줄다리기까지 하고 나니 어느새 어둑어둑해졌다. 각자 운동장 구석구석으로 퍼져 오늘의 구호 “여자들이여, 운동장으로 나오라”를 자기 방식대로 외치는 플래시몹으로 운동회가 끝이 났다. 미리 예약해둔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뒤풀이에 남아 예약했던 자리가 부족하기까지!) 아직 흥분이 사그라들지 않은 마음을 나누고, 운동회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면서 웃음을 나눴다.

이기고 지고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기도, 전혀 중요하지 않기도 하다. 멋지게 골도 넣어보고 싶고, 언니들의 열띤 응원도 있고, 이기면 기분도 좋으니까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잘하는지 줄 세워서 순위 매기려고 운동하지 않는다. 어떤 결과를 냈는지, 누가 더 뛰어난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기존의 ‘남성적’ 순위매기기 방식은 별로다. 다른 팀이라도 어떤 언니가 너무너무 잘하면 샘나지만 박수도 쳐주고, 못해도 뛰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출전하는 거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이곳에서 이 멋진 여자들이 모여 함께 소리 지르고, 뒹굴고, 뛰고 있다는 두근거림. 우리의 몸짓을 ‘여자답지 못하다’며 욕하는 사람도, 불쾌한 시선도, 내가 이상한가 하는 자기검열도 지금 여기에는 존재할 틈이 없다. 중요한 건 이리도 반짝반짝 빛나는 언니들이 함께 뛰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의 움직임은 여기서 끝이 아닐 것이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언니들과 이 감동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다.

자, 당신도? 그렇다면 함께! ☺



꿈은 상처가 없다

◎ 꿈테라피 참여자 영서

추석을 피하고 싶어서였다.

홀로 보내는 명절은 내가 혼자라는 사실을 마음과 몸, 입까지도 느끼게 해서 싫다. 평소에 먹던 밥이 명절에는 그렇게도 먹기 싫다. 남들은 송편 먹는데.....그리고 싫든 좋든 가족들이 모여 앉아 먹는데 혼자 먹는 밥은 더 이상 밥이 아니다. 그래, 그래서 꿈찾기여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했다. 단식을 한다고 하는데 혼자 먹는 밥보다는 여럿이 굶는 게 더 좋겠다 싶었다. 나는 그렇게 불량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꿈찾기여행에 동행했다.

낯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먼저 말거는 것을 잘 못하는 나는 평소 친한 친구 옆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나이가 꽤 많아 보이는 집단, 어려봐야 20대 후반 많은 사람은 40대 중후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꿈"이라는 단어로 모였다는 게 신기했다. 무엇보다 평범하게만 보이는 결혼한 아주머니들과 대화가 될지 걱정됐다. 이미 현실에 안주해 살아가는 듯 보이는 이들이 비혼에 혼자 아등바등 먹고 살겠다고 살아가는 나를 이해할까 싶었다.

처음 자기 소개시간, 우와 드디어 아주머니께서 입을 열었다. 1시간도 넘게 이야기한다. 참고 살아온 순간들을 세세히. 단식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0분 간격으로 마시는 시다 못해 쓴 맛을 내기 시작한 레몬즙을 저 아주머니가 자기 소개하는 동안 두 번이나 마셨다.(지금도 입에 침이 고인다ㅠㅠ) '왜 참을까?' 생각하며 들었다. 하나둘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는데 참고 살아왔던 순간들이 참 많다는 걸 알았다. 여기까지가 과거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이었다.

이후 진행된 나의 기질 찾기는 아무리 안 좋은 부모에게서조차 좋은 기질을 배운 게 있을 것이라는 진행자의 말에 곰곰 생각하니 "정말 있었다" 그 속에도 좋은 점이.

내가 찾아낸 나의 기질 중 단연 최고는 "하고 싶은 것은 하고야 마는" 나의 그 고집스러움이었다. 엄마와 아빠도 그랬다. 심지어 함께 살았던 친할머니도 그랬다. 외할머니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사시는 분이였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오빠의 가을운동회날 혼자 집에서 주섬주섬 한복을 챙겨입고 부채춤을 추는 언니들 한복판에서 나만의 가락으로 춤을 추던 어릴 적 내 모습, "상처와 용서"라는 책을 쓰셨던 대학원 원장 신부님을 찾아가 다짜고짜 "상처가 뭔지 아시거나 하느냐? 용서를 뭐 이렇게 쉽게 썼느냐?" 따지던 내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싶었다. 지금은 수도복을 벗은 나

의 남자친구도 신부가 되기 위해 수도자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좋다는데, 보이는 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을 사랑하겠다는 거야"라며 설득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다보면 삶도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게 아닐까 싶었다. 그리고 나의 꿈도 이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동안은 나의 기질들을 "드러운 성질"이라 생각하고 좋아하지 못했는데 곰곰 생각해보니 괜찮은 듯 했다.

MBTI도 했는데 INFP인 내 성향도 썩 마음에 들었다. 예전에는 나에 대해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여기 와서 듣는 나에 대한 설명들은 좋게 받아들여졌다. 신기하게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조금씩 그런 눈치다. 사실 우리가 발표하는 걸 그 상황과 분위기를 모르는 사람이 듣는다면 토할지도 모를 정도로 공주고, 환상이고, 꿈같았다.

자기 자신이 잘하는 것과 자신의 성향들을 자세히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세워나갔다. 자신만 가질 수 있는 직업의 이름을 만들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자신만의 행동계획을 세웠다. 이미 이루어진 듯 모든 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그득하다. 처음 만났을 때는 꿈을 잃고 죽은 사람 같았는데 꿈을 회복하면서 생기를 얻은 듯 얼굴빛이 환하다.

각자의 꿈을 발표하는 시간,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격려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꿈을 이룬 미래에서 서로를 만나고 있었다. 박수를 날리고, 환호성을 질러주며 우리의 밤은 생동하는 꿈이 되었다.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꿈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미래의 10장면을 사진처럼 써서 발표했다. 정말 신기했던 것은 서로의 글속에서 우리가 거미줄처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서로 이야기 나누지 않았는데 내가 아기를 낳고 모유수유를 하며 힘들어하는 장면을 쓰고 혼자 속으로 쑥스러웠는데 나보다 먼저 발표한 후박나무가 나의 젖몸살을 걱정하는 장면이 교차했을 때는 소름이 돋았다. 내가 아기를 낳기는 낳으려나 보다. 예전에는 엄마나 아빠처럼 자식을 키우게 될까 두려워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말아야지 다짐하곤 했었다. 그런데 꿈찾기를 하는 동안 나를 돌아보며 나는 엄마, 아빠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모두들 그렇게 자기를 발견하고, 만나고 있었다.

함께 꿈꾸는 동무로 만나고 보니 꿈을 꾸다는 건 영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게 아닐까 싶었다. 상처로, 참아온 세월로 힘들어하던 기운을 몰아내고 날아든 생명력.

어릴 적 나, 나의 기억과 같은 과거에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꿈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는 상처란 단어조차 느낌조차 풍기지 않았다. 어차피 꿈꾸는 시간들도 언젠가는 그들의 현재가 되고, 과거가 될 텐데 그 시간들 속에서 상처는 찾을 수 없었다.

우리는 어느 새 알게 된 것이다.

꿈에는 상처가 없다는 것을. ☺

한국성폭력상담소 1+1호프행사 반성폭력 서포터즈 한 해 보내기 날

그리운 사람들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저마다의 소망을 담아 새해를 맞이할
반 성폭력 서포터즈의 축제, 한 해보내기 날이 12월15일 열립니다.
반.한.날은 성폭력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평화의 세상을 기원하는 생존자, 서포터즈,
시민들이 모여 함께 즐기는 신나는 문화행사이자 힘찬 의기투합장입니다.
뜻 깊고 행복한 한해의 마무리와 벅찬 새해맞이를
반성폭력 서포터즈의 한해보내기 날에서 함께 해요.

Program	2:00	반한날 시작
	4:00~6:00	타로
	6:00~6:30	경매
	7:00~8:30	본행사 풍물패 어우리 공연 2007년 반성폭력 활동공유 스윙시스터즈 멋진 뮤지션 '시와' 페미니스트 가수 '지현'
	11:00	반한날 행사 종료



※자세한 내용은 본 상담소홈페이지(www.sisters.or.kr)를
참고해 주세요 _ 문의 : 여명 (02-338-2890)

일시 : 2007년 12월 15일 (토) 오후 2 ~ 11시

장소 : 비어할레 종로 5가점 (1호선 종로 5가역 13번 출구 앞 국민은행 지하 2층)

[소모임 활동]

♥ 토닥스터디

9/15(토) 남성들의 경제학을 넘어서

♥ 여성소셜읽기 모임

10/18(목) 바리데기
11/13(화) 과부마을이야기

♥ 등산소모임

11/10(토) 북한산 새벽산행

[따뜻한 사람들의 훈훈한 소식]

♥ 바자회 의류

김혜경님께서 올 해 일일호프 반한날 행사에 있을 바자회에 의류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 이효숙 전 책임상담원 선생님의 커피공방, Cafe the sol 열다!

세계 각국의 커피 기부를 통해 상담소를 따뜻하고 향기롭게 채워주셨던 이효숙 전 책임상담원 선생님께서 드디어 커피공방 cafe the sol을 여셨습니다. 이효숙 선생님의 커피 후원 이야기는 지난 나눔터 56호 '회원소식'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자리잡은 cafe the sol에서 커피를 드시면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회원이에요"라고 밝혀주시면 수익의 일부가 우리 상담소로 기부된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

(약도는 <http://www.sisters.or.kr/coffee/>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열림터 청소년 장학금 모금을 위한 파티 What a difference a night can make!

11월 8일, 열림터에서 자원활동을 해 주셨던 Lisa 님의 친구 Carry 님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시면서 송별파티 겸 열림터 청소년 장학금 모금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 열림터 학습지도에 애쓰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미정 님(과학, 수학), 이현주 님(영어), 김혜진(영어), 자비(영어, 수학), 토리(영어), 주혜정 님(피아노)께서 열림터 청소년들의 학습지도에 힘쓰고 계십니다.